

제 16권 제5호

2010년 9, 10월호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바벨탑 - 불신의 기념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은사들-치료의 은사

믿음의 열매를 맺자!

어느 덧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결실에 계절, 가을이 되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눅13:8).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를 정성껏 돌본 과원지기에 고백이다. 과원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씨를 뿌린 농부는 그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그런데 식물이 자기 능력으로 자라는가? 아니다. 태양이 빛을 비춰 주었고, 비가 수분을 공급해 주었고,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잡초를 뽑아주었다. 병들었을 때는 농약도 쳐주었고 벌레도 잡아 주었다. 이렇듯 식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농부에 돌봄을 받고 자란다. 식물을 가꾼 농부는 열매를 기다린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기뻐한다.

인간도 이와 같다. 부모님이 씨를 뿌림으로 생명이 탄생한다. 태어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라는가? 아니다. 부모님에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란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 숭고한 그 사랑을 무엇과 비교하며, 무슨 말로 표현하겠는가? 비교할 수도 없고 표현할 말도 없다. 그런데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키운 부모에 소원은, 자녀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녀가 맺은 열매를 보는 순간, 부모는 그 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다.

또 하나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믿음의 열매이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의 씨를 뿌렸다. 믿음의 씨를 뿌린 후에, 예수님은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정성껏 돌보셨다. 농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은 나를 돌보시고 가꾸셨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허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사49:15-16) 이것이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또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공허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 나이다.”라고 그대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계신다. 이 연장된 은혜의 기간 중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봉사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 성령을 부어 주셨고, 구주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행 6:15)은 얼굴로 예수님을 증거 하였다.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사 5:4)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예수님은 아직도 “나 여호와와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사 27:3)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독자여, 이렇듯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는가? 농부의 소원이나 부모의 소원처럼 그것은 열매이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리자! 살-롬!◇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1893년 대총회 회보 - A. T. 존스

○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下) 4

복음의 보물

○ 제 28과 그리스도 교회의 의식들 8

○ 제 29과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인가? 11

○ 제 30과 참 행복을 어떻게 찾을수 있는가? 14

인류의 역사는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

○ 5. 바벨탑 - 불신(不信)의 기념탑 17

“하나님께서 세상을로부터 한 백성을 높이 들리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곧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전적으로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과 견해를 견지하고, 각자가 몸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다양한 은사들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일치에 이를 것이다.” -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9

진리의 기둥과 터

격월간 정기 간행물
2010년 9-10월호
제16권 제5호, 통권139호
2010년 8월 16일 인쇄
2010년 8월 17일 발행
제철일 재림교
개혁운동 한국합회
편집인/출판위원회
인쇄인/서진인쇄사
발행처/의성사

www.sdarm.or.kr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2리 32번지
전화 : (054)435-1843
팩스 : (054)434-4521
인터넷 전화 : 070-8236-1843

(농 협) 737032-56-140849 현종환
(우체국) 700377-01-001881 서 회

구독료 : 1년 20,000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

“우리는 다른 편의 것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이다. 여기에 진리의 한편이 있고 저기에 진리의 다른 한편이 있다.

그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양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 자신의 방법으로? 그는 이것, 저것을 들었다.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그는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이편, 저편을 비교하고 서로 대조해보고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판단하지 않는가? 그가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나의 마음, 나의 판단, 그리고 논쟁으로 진리를 저울질하는 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불변의 척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시금석은 불변의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천만인의 논쟁과 수많은 오류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아래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시험하는 것은 백만가지의 의견 가운데서라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서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진리의 척도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한계를 정한 진리에 대한 그 자신의 견해이다. 그러나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있는 이 시기에 그것이 비록 옳을지라도 그것이 역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매우 급속히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가 반대자들을 찾아보고 양편의 논쟁을 들어볼 시간이 없는데, 왜냐하면 수 많은 논쟁과 반대들을 듣는 동안 영원히 뒤로 처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에 그 위치에 처해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시간은 그런 것들을 듣고 있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처지 가운데 있다면 버린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언약의 말씀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요한 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어떤 영이라 했는가? 진리의 영. 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하신 약속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라. 여기 집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녁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가? 진리의 영을 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매일 참석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기도에 참여하여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한다면 이 집회가 훌륭한 집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 집회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여 좋은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자. [회중: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위해 아버지께 기도한 후에 주실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그의 기도는 들으시는바 되었는데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

하셨고 우리는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했으며 그가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는 그가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받은 줄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오늘 저녁 그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확신이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는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 그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확신인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주 안에서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 집회에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 구하라. 그가 우리를 들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그의 뜻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시간, 그분께 나아가 진리의 성령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받을 것을 알며 그가 우리를 들으심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심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소망하고 있는 탄원이 있음을 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는 우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다. 그가 들으신다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것을 안다.

그것을 얻을 것인가?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의 뜻대로 구하였을 때, 그가 우리를 들으심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집회에 매일 아침 모이기 전에 그의 뜻을 따라 성령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그가 가르쳐주시기를 기대하고 또한 강사들을 가르치시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구하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얼마동안 인가? 영원토록. 그렇다. 진리의 영은 아무리 철혹같은 오류의 어두움속에 서라도 진리를 나타내실 수 있다. 얼마동안이나 그렇게 하실 것인가? 영원토록. 그 사실이 기쁘지 않은가?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거기에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는 약속은 기쁜 것이 아닌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한 너희 속에 계시

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는가?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는 그것을 하실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다.

자, 형제들이여.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다시 정립해 보자. “진리를 알지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그리고 “그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겠는가?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그분께 굴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진리를 알지니” “아버지께서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굴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의지하지 않겠는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그렇게 하실 것인가? 그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렇다. 주님께서서는 장래의 일들을 우리가 알게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장래의 일들을 알도록 백성들이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있는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다.

예수께서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 놀라지 않기를 바라신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장래의 일들을 알므로 놀래거나 엉뚱하게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리고 그는 무엇인가? “내가 진리요 진리의 영이라” 그는 그의 것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진리의 영이 오직 주님의 것을 취하실 때,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모든 것인데, 그는 자의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인데,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복종하여 그의 안에서 행하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같은 것을 그의 위치에서 행하실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남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찾아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신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에는 영원한 목적이 있으며 그것의 깊이가 있다. 그곳이 우리가 서야 할 곳이며, 구하고 또 매일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연구와 모든 사업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진리의 영을 소유하게 하는 곳이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라.

“성경은 결코 기도 없이 연구하지 말 것이다.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기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dana엘이 예수께 나아왔을 때에 구주께서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외치셨다(요 1:47). 나dana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가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요 1:48)하고 대답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주께 빛을 구할 때에 그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 있는 우리를 보실 것이다. 광명한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신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은 구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의 의의 순결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구원을 보여주는 일은 성신이 하는 직무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 16:14) 하셨다. 진리의 영은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유일의 유력한 교사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자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당신의 성신을 우리의 스승과 끊임없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인류를 귀중히 여기시는지 가히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현세에서라도 당신의 말씀의 진리가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즉 그 말씀을 주신 성신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심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11) 그리고 구주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 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 16:13, 14)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그의 사고력을 연단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성경 연구는 아무 다른 연구로는 불가능한 정신을 건전하고 고상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병약에 지배되는 변하기 쉬운 이론을 숭상하는 일을 조심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이 흐려져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아주 명백한 진리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이의 순진성과 믿음을 가지고 성신의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고 다른 편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깨닫기에는 우리가 무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생겨야 할 것이고 그의 말씀을 펼 때에 마치 그가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파악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때에는 우리의 이성은 그 이성 자체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지능은 크신 영원자존자(永遠自存者) 앞에 굴복해야 할 것이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숨쉬는 동안, 그의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만일”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도록 하자. 그것에 대해 “만일”이라는 의문이 있는가? 거기에는 “만일”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이다. 그것이 그러함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도록 하라.

복음 사역자 126페이지의 말씀을 읽겠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진리를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의 공로위에서 받아들여기를 원하신다. 그 사상들이 참된 것이라고 그들이 얼마나 오래 믿어왔던지 상관없이 성경은 사람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나도 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대들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나아올 때, 우리의 정신은 우리 곁에 있는 조력자의 성격을 결정할 것이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매일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온다. 증언의 말씀은 그대의 정신이 그대 곁에 있는 조력자의 성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빛의 세계에서 오는 천사들은 마음을 겸비함으로 성신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성령이 불경건으로 펼쳐지고 자아 만족의 느낌으로 펼쳐지며 마음이 편견으로 가득차 있다면 사단은 그대 곁에 있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곡해된 빛으로 만듦 것이다.”

사단이 우리의 조력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참석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이곳에 있는 동안 그분 안에 있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생각해주도록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의해 인도함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인도하신다면 그 여인의 인도함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당나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다면 좋았을뻔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직접 그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도 그를 인도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큰 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누가 인도할지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자.

어떤 사람이 언젠가 예언의 신에 대하여 말하면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만 당하고 있는지를 말하며, 그들의 교사들이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아무런 반대도 없이 받아들인다고 말하였다.

나는 속으로 그에게 그가 말한대로 해보기를 원하노라고 말하였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한편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모든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외에는 누구라도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인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 위치에 서도록 하자. 그리고 그분에 의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에 의하여, 양과 같이 쉽게 인도함을 받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의 견해에 집착하여 우리의 견해를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므로 하나님을 대항한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자. ... 누구라도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부요함과 원대함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은 보이는 한 편의 영광을 붙잡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아름다움과 은혜를 발견하므로 영혼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모든 영광을 본다면 우리의 영혼은 기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즐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으로부터 더욱 위대한 계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계획된 축복의 충만함을 시야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가에 대해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 매일 매일 행할 때에 영적 계몽의 순간적인 섬광에 만족해버리고 있다. ...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리라는 약속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진리의 영을 주신다. 그리고 그 영은 온전한 인도자이시며 불변하시는 분으로 교리의 폭풍이 불때, 다른 모든 음성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부터 오지 않는 다른 모든 음성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형제들이여, 이러한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읊이 말한 것과 같이 “누가 하나님과 같이 가르칠 수 있는가?” -1893회보, 제1번



제 28 과

그리스도 교회의 의식들

우리가 시작한 공부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성경 연구 과목을 마치면 새 생애의 출발점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는다.

오래지 아니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되었다” 는 엄숙한 선언을 하실 것이다. 그 때에 이 지상에서의 구속 사업도 마쳐짐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생(生)과 사(死)가 결정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신실한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여러분도 영광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싶지 않은가?

이번 과에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의식들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여러 의식과 규례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그 의식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남겨 주신 모본들이 교회에서 의식으로 행해져 왔는데 침례와 성만찬 예식이 있으며 지금부터 그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하자.

※ 침례

Q. 예수님은 각 시대에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본을 보여 주셨는가?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 마 3:13, 16.

Q. 침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어떤 분부를 하셨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 (막 16:15, 16. 참조)

Q.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 하며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 6:3, 4.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였으므로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바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했던 내적인 경험을 만인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죽음) 됨을 상징하며 죄에 속한 우리 옛 사람을 이전의 좋지 못한 습관과 함께 장사지내고 이제부터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기로 엄숙히 서약 하는 것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상징한다. 우리는 하늘 왕국의 한 사람이 되며 하늘 왕의 자녀가 된다.

Q.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로 어떤 단계들을 필요로 하는가?

성경은 엄숙한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 적어도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침례 후보자가 이 문제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결심이 확고함을 본 연후에 침례를 베풀게 된다.

침례 후보자는:

1.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분히 공부해야 한다. 마 28:19, 20.
2.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 막 16:16, 행 8:36, 37.
3. 자신의 죄를 회개 하여야 한다. 행 2:38.
4.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롬 6:3, 11-13.
5.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각오와 열렬한 욕망이 있어야 한다. 롬 6:11, 13.

Q. 성경에 나타난 침례 의식은 어떻게 행해졌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식인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침례식을 대신하고 또 성령만 받으면 되지 물의 침례가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요 3:5) 베드로의 말을 주의하여 보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행 10:47. 이것은 성령을 받았으나 물의 침례를 아직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대한 실례가 된다.

침례 후보자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림으로 침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1.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요 3:23.
2.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쌌.” 마 3:16.
3. 빌립과 내시가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니. 행 8:36-39.

Q. 성경은 침례를 얼마나 중요한 예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엡 4:5

어떤 경험이 침례를 받은 신자로서 바람직한 자세인가?

1.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 기도와 성경 연구에 힘쓴다.
2. 자기 중심적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한다.
3.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므로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고전 12:13.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머리이다.(엡 4:15, 16) 침례를 받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곧 지상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고전 12:20, 27)

성만찬예식

Q. 성만찬 예식은 누가 제정하셨는가?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기념하라...” 눅 22:19.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던 제자제도가 실제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그 대신 성만찬 예식으로 대체하게 하셨다.

Q. 떡과 포도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6-28.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Q. 성찬식은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성찬 예식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드러진 크신 희생 제물을 되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큰 날을 가르쳐 주고 있다.

Q.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짐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고전 11:28.

마음을 면밀히 살핀 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의식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고전 11:27, 29.

성찬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본을 보이셨는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요 13:4, 5.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풍속이었으나 이 때에는 종이 없었으므로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다. 그 이유는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천한 일을 하기 위하여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Q.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14, 15.

이 겸손 예식은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행위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형제의 발을 씻는 욕심 없는 봉사를 한 우리의 선생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Q. 성찬 예식에 앞서 겸허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 왜 필요한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 13:17.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잘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과는 전연 다른 문제이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이는데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그 뜻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다.

침례와 성찬 의식은 두개의 기념하는 기등으로서 하나는 교회 밖에서 행하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식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식에 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당신의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2권, 529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하는 자신에 대한 맹서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장사 지냄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일으킴을 받았으니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한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인 생애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바쳐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모든 세속적인 생각은 이 새로운 관계에 버금가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는 다시는 자만과 방종 속에서 살지 않기를 공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는 다시는 부주의하고 냉담한 생애를 살지 않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2권, 529, 530 ◇

제 29 과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무관심이다. 자유분방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흐르는 경향이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의 기독교계에 나타날 불신과 타락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무리가 있을 것을 지적하면서(딤후 3:5) 이러한 무리에서 돌아서라고 권고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정사와 권세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너무나 흔하게 죄를 품고 변명한다. 성령의 예리한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찢어 쪼개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난한 말을 듣기를 좋아함으로 저들의 행실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안락과 평화를 누린다. 기독교가 변하였는가?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증오심이 약해졌는가? 종교적 생활은 한 때 고난을 나타냈으며 극기를 요구하였다.

이제는 만사가 매우 쉽게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들이 어두움의 권세와 타협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상하신가? 그렇지 않으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날을 지키고 무엇을 먹고,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한다.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의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아 보기로 하겠다.

'그리스도인의 표준'

Q.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만민을 위하여 기(표준)를 들라" 사 62:10. 교회는 성

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표준들을 유지하고 높이어야 할 엄숙한 의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태로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의의 표준을 언제나 높이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Q.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성정을 따르는 것은 안전한 일인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같이니라" 잠 16:25.

Q. 참 원칙들을 위한 우리의 지침서는 무엇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 17.

Q. 성경은 누구를 모본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는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요일 2:6 (벧전 2:21 참조)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으로 우리 앞에 모든 일을 바라보고 실행에 옮긴다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다.

Q.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같이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은 어떤 사례를 들고 있는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

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야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행 5:1-1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읍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행 10:1-6.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가족, 이름, 사는곳은 물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바 된다.

※ 그리스도인 품행의 두가지 원칙

Q.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롬 12:2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습에서 나와 따로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요일 2:15-17) 진실로 회개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유행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영화롭게 하기를 사모할 것이다. 죄에 속한 옛 사람은 침례를 통해 물에 장사되었으니 이제는 새 생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의복”

Q. 여인들의 의복에 관하여 신약 성경에서 무슨 분명한 지시를 하셨는가?

“또 이와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딤후 2:9, 10.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벧전 3:3, 4.

이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의복에 대한 기준을 몇 마디의 말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품행은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에서 우러나올수 있도록 내적인 단장을 바라신다.

Q. 구약시대에 어떠한 실례가 있었는가?

“...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출 33:5, 6.

Q. 화장을 하거나 몸치장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삿 8:24. “... 이세벨이 ...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 보다가 왕하 9:30. “...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눈을 그려 꾸밀찌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렘 4:30.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겔 23:40.

“...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가서 나를 잊어 버리고 ...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호 2:13.

화장과 몸치장은 대체로 자기 과시와 과장의 심리에서 시작되었다 생각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꾸밈없이 있는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과 오락’

Q. 왜 가나안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나?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고” 민 33:52.

우리는 겔 23:14-16절에서 이들 그림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반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오늘날에도 영적 진리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다른 형태의 사진들이 있다. 이러한 것으로 영화(映畵)를 들수 있으며 영화에서 주로 죄와 부도덕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제시한다. 이제 사단은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죄악들을 사람들의 안방에까지 가지고 들어 왔다. 빌립보 4:8절의 원칙은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겠다. 순결하지 못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는 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한다.

Q. 그리스도인 생활 계획표에 무엇을 꼭 포함 시켜야 하는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 에 착념하라” 딤후 4:13.

“읽는 책에 따라 인간이 형성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사단은 신문 잡지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말버등을 치고 있다. 신문 판매대와 서점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들을 파멸로 이끄는 독서

물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릇된 독서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 이러한 매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려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 체험은 우리가 읽는 서적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도행전 19:18, 19에서 복음의 빛을 받아들였을 때에, 나쁜 서적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사람의 멋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본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성경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가치있는 서적들이 있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서적들을 제시하겠다.

Q.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노래가 적합한가?

“...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찌니라 약 5:13.

“...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 3:16.

Q.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믿는 우리들은 죄에 승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벧후 3:14.

만일 우리가 계속 경계하지 않으면 사단은 들어와서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참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가 전능자의 팔에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육체와 정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깨끗한 휴양을 통하여 저희 정신을 새롭게 하고 저희 신체에 활력을 주려고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다. 우리의 휴양은 어리석은 꼴을 한 몰지각한 환락의 정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사귀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지워진 의무에 더욱 성공적으로 종사하는데 보다 나은 자격을 우리들과 저들로 갖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오락들을 인도할 수 있다.” - 제롬 신도의 가정, 493 ◇

제 30 과

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슬픈 일이지만 추구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행복을 가져다 줄 만능 통치약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없다. 물리학자는 원자를 쪼갤 수는 있을지 모르나 전자의 운동에서 행복이라는 진동을 발견할 수는 없다.

미술가는 화폭 위에 행복을 그리려고 애쓰나 행복을 적절하게 그릴 수가 없음을 깨닫는다.

천문 학자들은 고성능 망원경으로 우주의 끝까지 탐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행복의 비결을 찾아 줄 수는 없다.

사람들이 부(富)와 세상 재물에서 행복을 찾고 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눅 12:15)고 말씀 하셨다.

재물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 오락과 도박같은 허황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년과 같이 행복은 요원한 꿈에 불과하다.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비결들을 이미 밝혀 주셨다. 부디 이번 과에서 이 행복의 길을 발견하게 됨으로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Q. 솔로몬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았으며 그 결국은 무엇이라 했는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 1:13, 14.

최고의 물질적, 정신적 부를 누린 사람으로 우리는 흔히 솔로몬 왕을 꼽곤한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 하느니라.” 전 1:18.

솔로몬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에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큰 건물들과 기업화된 농경지와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렸지만 이 모든 것이 “헛 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전도서 2:11) 것과 같다고 하였다.

Q. 솔로몬은 어디에서 행복의 비결을 깨달았는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 12:13.

솔로몬은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계시하는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와 거의 같은 말씀을 계 22:14절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영어 성경 참조) 성경에서 복되다는 말은 행복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순종은 언제나 불행과 영혼의 빈곤을 가져온다. 이것은 천연계에 있어서도 같다. 만일 좋지 않은 식물들을 먹으면 그 댓가는 질병이다.

만일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행복의 청사진이므로 우리가 이 법규를 지킬 때에 우리의 생애는 이 청사진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Q. 예수님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는가?

마태복음 5:3-12의 팔복에서 사람들의 행복이 외적(물질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적(정신적)임을 말씀하고 계시다.

Q.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어떠했으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어떠한 삶에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는 떨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아는 자라...” 사 53:3.

“...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그리스도의 생애는 죄인들을 위한 수고와 고통과 슬픔으로 짓눌린 생애를 사셨으나 그의 내면(정신)까지 짓눌린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생명샘이었고 그는 어디를 가시든지 안정과 화평과 즐거움을 주셨다.” (정로의 계단 135페이지)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이 세상의 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승리 할 수 있다.

Q. 행복한 길에 대해서 성경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렘 15:16.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는 성경에서 앞서 살아갈 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가운데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므로 과연 성경은 진리의 보고요 생의 지침서로 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성경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물론 영원한 행복에 이끌리게 한다.

Q.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 하심이니.” 사 61:10.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가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된 권세를 누리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Q.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또 무엇이 있는가? 또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6.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친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활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로 사도 시대의 부흥과 연합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Q. 그리스도인 삶의 기쁨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보증의 말씀을 하시는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 119:165절

오늘날 바빠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참기 힘들고 다급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정된 심령의 평안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Q. 그리스도인 생애에 평안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사 26:3.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불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자유를(죄와 유희으로부터) 누리게 하실 것이다.

Q.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의인들은 무슨 경험을 할 것인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사 25:9.

Q.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구속받은 자들을 바치실 때에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는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사 65:19.

Q. 만일 충실하면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무엇을 경험하게 되겠는가?

“...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 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할찌어다.” 마 25:21.

“이 세상의 행복은 환경에 따라 변하기 쉬운 것이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 행복은 생애의 어떠한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요 세상 물질의 다소나 세상 친구의 다소에 따르는 것도 아니

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니 그가 주는 행복은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산상보훈, 31.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에덴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꼭 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이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149

“영적 달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표준에 달하려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은혜 중에 자라나지도 못하는 사람은 타락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104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히 세상에서 요구되는 것은 없다.” -실교훈, 440 ◇

5. 바벨탑 - 불신의 기념탑



“바벨탑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 -부조와 선지자, 119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결과의 소산물

홍수 후 “방주에서 풀려 나오는 기쁨 중에서도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신 그분을 잊지 않았다.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희생을 드려서, 구원에 대한 그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다. 그는 그와 같이 함으로써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

이 체사는 주를 기쁘시게 했으며 족장과 그의 가족뿐 아니라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부조와 선지자, 105~106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릴 때에 또 다른 홍수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공포에 싸이지 않도록 주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한 약속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다.「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 하리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 9:11~16)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를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 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 하기로 맹세 하였는데 산들을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 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니.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와 말이니라.” (사 54:9,10)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부절제의 결과 (포도주를 마심) 아들 중「함」이 나타낸 비열함과 불경을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다.(창 9:20-25)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 출생되었다.

*「니므롯」- 세상의 처음 영걸이다.

「영걸」-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 폭군 등의 뜻. 즉, 「니므롯」이 폭력과 힘으로 최초의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 자임을 암시한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불신)하고 「바벨탑」 건설자가 되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이 곳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데 마음이 끌려 이 평야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은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하늘에까지 닿은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써 서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119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으며 “홍수는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을 또 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탑의 맨 위층에는 금으로 만든 벨 신상이 있으며 정금으로 만든 우상과 광대한 기명이 있었다.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 그들의 우상들에게 봉납되었다. 백성들은 그들이 성공을 기뻐하고 금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제를 대적하였다. 탑은 매우 높이 솟아올라 높은 곳에서 건축 재료를 주문하면 다른 지시를 받고 결국은 언어의 혼란이 일어나서 탑 건축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지금도 인간들을 여전히 동일한 노선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리는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부조와 선지자, 123-4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推論)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그들은 몸시 주체념게도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를 비판하고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며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충분하다고 자랑한다. 소위 그리스도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사람의 이론과 재미있는 우화로 신조를 만들어 올리고 그 힘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가르친다.” -부조와 선지자, 124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열과 분쟁은 그침이 없을 것이다. 상이한 신조와 교파로 이루어진 작금의 혼란은 바벨론 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예언은 그 용어를 세상에 자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한다.”(계 14:8, 18:2)

“많은 사람들은 부귀와 권력을 얻음으로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악하게 압제하여 말며 거만하게 말하며”(시 7:8) 인권을 짓밟고 하나님도의 권위를 멸시한다. 거만한 사람들이 한동안 큰 권력을 휘두르고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성공할지는 모르나 결국 그들은 실망과 불행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조사의 때가 임박했다. 지존자께서 인간들이 건설한 것을 보시려고 곧 강림하실 것이다. 그분의 주권이 드러날 것이며 교만한 인간의 사업들은 낮춤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와의 도모는 अन연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리다”(시 33:13,14,10,11)“ -부조와 선지자, 124

바벨탑(부절제)의 소산물(기념비)들

1) 교육- 하나님의 말씀(원본)에서 떠나면 인간의 철학과 지혜와 이론에 의존한다. 세상과 혼합시킨 교육을 바벨론 교육제도라고 한다. 라브(학사) 랍비(석사) 라반(박사) 이스라엘의 교육제도(학위)

2) 종교- 잘못된 가르침(바벨론 교육제도)은 바벨론 종교를 만든다.

3) 의학- 바벨론 교육제도는 약물 종교를 만들었고 이 약물은 인체의 사령탑(대뇌:전두엽)을 바벨화 만들었다. 약물은 인체의 면역을 저하시키고 난치의 병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4)식생활- 가르침(교육)이 잘못되면 바벨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이 잘못되면 영성을 마비시키고 도덕성을 저하시키며 피를 혼탁하게 하므로 현대병을 유발시키고 자체력을 상실하여 정육대로 행하는 비 인륜적인 인간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바벨론(부절제)의 교육은 바벨론의 종교를 생산하고 결국은 “내 백성이 거기서(부절제)나와 그의 죄에 참여치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경고와 초청을 받게 된다.

「바벨론의 교육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구세주를 인간의 뇌리에서 지우고 인위적이고 인간을 높이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꾸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 교육의 기원은 선악과(부절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산물이 태양신(바벨탑)으로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추적하면서 인류의 조상을 속인 대 기만과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바벨론의 교육제도는 로마 법왕교가 전수하였고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나 켈랑톤(개혁자들은) 법왕교회의 세력이 그 교육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교육제도의 급소를 쳐서 상하게 하여 법왕교를 그 무릎에 꿇게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 제도를 설립하여 그 자녀들로 개신교도들이 되도록 하였다. 교육과 종교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혁자들의 성패 여부는 교육제도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달려 있었다.

법왕교는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개신교회 학교를 짓밟고 승리를 거두는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법왕교 교육제도를 드디어 도입하므로(잔스툼에 의해)현대 그리스도인 문화에 그리스도와 로마의 문화를 재현시키게 되었다.

법왕교는 제수이트(예수회)학교를 세워서 법왕교 교육제도를 계승하는 데 도구가 되었다. 교육 방법으로 “암기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고능력과 명석한 판단력을 제어하는 한 수단으로서 강요되었다.”

제수이트파 교육제도는 마음의 독창성이나 독립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 올바른 판단력을 나타나게 하거나 형성하는 것 따위는 소홀히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였다. -페인터; 172-3p

종교개혁은 교육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희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법왕교의 교육제도를 개신교가 계승하면서 본연의 개혁정신은 사라지고 프로테스탄트(저항)는 법왕교회에 정복되고 말았다.

1844년 당시에 개신교회가 1844년 이전에 주어진 기별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열거한 교육사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법왕교의 정신을 지닌 개신교주의 형태를 낳게 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바벨론을 이룩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참된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밤중소리」가 났을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1844년 세상은 하늘 성소에서 대속죄일을 향해 접근해 가고 있었다. 개신교회가 참된 교육계로 전향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참된 과학을 분명히 이해하기 전에는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다음의 말씀은 저들에게 적용할 만한 말씀이다.

“과거 어느 때와는 달리 지금이야말로 교육에 대한 참된 과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UT. 1897. 7. 8

1844년에 개신교회가 직면하였고 똑같은 위험을 오늘 날 S.D.A가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개신교회가 그리스도인 교육원칙을 거절하므로 「밤중소리의 기별」을 증거 하도록 저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유명한 교회들의 도덕적인 쇠퇴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밤중소리의 기별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는바 S.D.A.는 개신교회가 실패한 참된 교육의 과학을 실천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므로 「현대 진리의 빛」을 세상에 밝히는 제사장 교회가 되어야만 하였다.

“참된 교육에 대한 학문은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도처에 편만한 오류에 의하여서도 지워져서는 안 될 진리이다.” -6T 131. 증언보감. 426. 427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교육이야말로 교리에 대한 빛이 아닌가?법왕교의 교육제도는 저들의 등불을 밝혀줄 수 없었는데, 이는 그(교육) 자체가 흑암이 있기 때문이었다.

밤중소리가 있기 전에 1831년경 차와 커피를 금하고 식초, 기름, 육식과 양념으로 고추, 겨자등 자극성 식품을 금하고 채식으로 학교 기숙사에 제공되는 운동이 있었다. 이 운동(기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미리 주신 것과 같이 큰 외침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절제 기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S.D.A.에 건강 개혁의 빛을 주시고 세 천사의 기별(현대 진리)를 전할 일꾼들을 준비시키도록 계획하셨던 것이다.

이 건강(절제) 기별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대열에서 떠나갈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셨다.

학교 위치와 학생들을 위한 전원생활 환경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학교를 세워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곳에서 교육하도록 하여 엄숙한 기별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령하셨다.

학교 농장에서 배운 유용한 교육(농업)은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나가는 자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메디슨 스쿨, 28-29

단순한 건물

법왕교 교육 장소인 건물들은 웅장하고 엄숙하고 킁킁하여 햇빛이 잘들지 않는 그러한 건물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억압되어 침묵을 요구하고 사상 교류의 결핍으로 인해 결국 모든 지적 문화에 대한 무감각과 중요성을 폄하하도록 교육시키려 한다.

“우리의 기관을 설립하고 시설을 갖추는 우리의 견해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을 뜻하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형성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부자라는 인상을 주려고 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의 사업에 감화력과 성공을 주는 것은 값비싼 건물이나 화려한 가구 또는 각종 진미들로 차려진 식탁들이 아니다. -7T 98-99

노작교육과 그 실용성

이 시대는 남녀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법왕교의 교육 제도는 일하면서 배우는 것을 배제하므로 남녀들로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증거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

지금까지 언급된 원칙대로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마음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정신발달(지적지식)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육체적인 노동(생산적 노동)을 하기 위해 보내었다고 하면 오늘날 훨씬 고상한 청소년들이 행동 무대에 올라 있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 학생들은 더욱 안정된 품성을 가지고 배출되었을 것이다. 용기, 지혜, 인내.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여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옷을 만들고, 헌 옷을 수리하고 실제적인 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온다면 사치와 유행과 과시와 허영, 부절제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써 행할 모든 봉사활동에 훈련된 선교사들이 되었을 것이다.

노동을 천시하고 실업을 경시하는 교육은 마치 팔 없이 몸만 있는 기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다.

농업학교나 실업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부모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싫어한다. 농사를 하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손에 기름을 묻히고 옷에 기름때가 묻은 기술자들보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햇빛, 맑은 공기의 결핍과 운동 부족으로 성인병 현대병, 직업병에 시달리고 창의적인 것보다 수동적이고, 현대판 중의 본능을 가지고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도 안타깝다.

개신교회가 노작 교육을 폐쇄하고 중세기 유럽 교육 제도, 귀족 교육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여 그리스도인 교육을 시키는 대신에 세속주의, 권위주의의 자들을 양육시키는 교육을 행했다. 개신교가 1844년 이전에 범한 가장 큰 손실이었다.

저들이 밤중 소리와 찻재 천사의 기별을 전파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작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작교육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만병통치약”을 잃어버리자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고, 그리스도인 교육개혁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것은 노작 교육을 통해서 “가장 가난한 소년 소녀들이라 해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저들의 생애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알맞도록” 했기 때문에 “선교 정신의 원동력”이라 불렀다.

운동경기가 노작교육(육체노동)을 대신함

노작(생산적인 운동)을 범죄 후에 인간 생존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의 한 수단이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3:19)

여기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노동은 저주로 생각하기 쉽다. 노동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호외 활동은 여호와와의 특효약이다." -7T 76,77

남녀로 하여금 들과 과원과 정원에서 일하게 하라. 이는 신경과 근육에 건강과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의료봉사 296-7

운동의 유익과 건강에 대한 증언의 말씀들이 대단히 많다.

생산적인 노작은 마음에 활력과 건강, 천연계의 신비, 창조주의 사랑, 능력을 이해할 수 있고 식물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장과 과정인 것을 이해 못하면 인간의 마음과 품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운동경기 축구, 야구 등 이런 매혹적인 오락(게임)에 빠져버리고 노작 대신 이러한 운동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기는 과도한 긴장감과 정신적, 육체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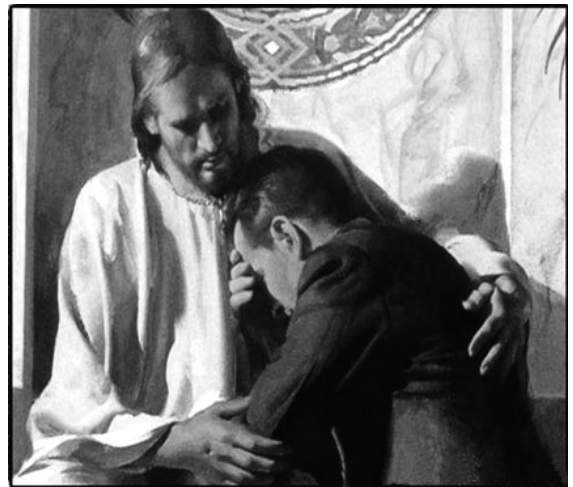
“육체적인 노동은 지혜의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과도한 운동을 조장하는 체육 시간경기에서의 긴장감, 신체 기관들의 운동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축구 경기나 이방인들이 만들어 낸 다른 경기 즉, 아무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하는 운동에 몰입하게 하는 힘은 누구의 힘인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 뛰노는 일이나 오락을 위해 시간을 보냈다고 하

는 데를 단 한번도 찾아볼 수 없었다. -TE PP190-192

참교육은 현대 진리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이며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운동 경기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노작)으로 대체될 것이다.

법왕교의 교육제도와 그리스도인의 교육 제도

◎법왕교의 교육 제도- 인간의 명령에 자원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종을 만들어 필수적인 품성의 요소들(개성, 창의력, 독립성)을 없이 하기 위해서 설립자들에 의해 고안되었다.



◎- 사상과 행동에 있어서의 개성, 창의력 및 독립성은 그리스도인 교육에 이해 계발되었고, 이 교육제도(그리스도인 교육제도)는 마음을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작 교육의 참된 목적은 자아부정과 자제력과 인내력, 세상을 포기하는 데 있었다.

밤중 소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특성은 노작 교육을 시행하는 그리스도인 학교 또는 생애의 평범한 경험을 통해서 개발되어야 했다. 이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과 침례요한처럼 농부 예언자였는데 생애의 평범한 여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자였다. 윌리엄 밀러의 경우는 그 당시 다져진 교육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그 당시 교육제도가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했으며 그 제도가 주는 부패한 감화에서 동떨어져 살았다. -밀러 15,16

큰 외침의 기별을 전하는데 필요 되는 품성은 밤중 소리의 기별을 전할 때 필요 되었던 품성과 매우 흡사함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자들의 마음을 지도할 것이다. 사역자들(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606

“법왕교의 교육제도의 영향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도록 그들을 부르실 때에 저들은 관습, 전통, 조직과 지도자들에게 얽매어 있었다. 큰 외침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준비하려는 우리들은 다음의 권면을 듣는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학교 설립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웠던 학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메디슨 스쿨, 28

교육이 바벨론이 되면 종교도 바벨론 된다는 말을 앞에서 말하였지만 법왕교 교육제도는 첫째 천사 기별을 거절하게 했다. 그리하여 둘째 천사 기별을 거절하므로 완전히 「바벨론」이 되었다.

바벨론이 되는 것은 진리에 오류를 가미하여, 다시 말하면 하늘과 세상을 혼합하여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예수님이 초림 때 바벨론의 교육제도를 모방한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랍비」(신학 석사)의 칭호를 받은 자, 권위 의식과 독선 사상이 팽배한 귀족주의 교육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인류의 구속주는 거절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구속주의 초림을 맞도록 외칠 자(광야의 소리)를 준비시킨 스가라는 침례요한(아들)을 랍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고 광야 신학을 시켰다. 먹고, 입고, 생활환경을 광야(천연계)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자연의 교과서와 두루마리 성경(구약) 말씀 속에 나타난 예언과 구속주의 품성(사업)을 배우고 신선한 공기와 물, 천연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들을 명상하면서 개혁자로서 사명을 지고 나타났다.

그는 백성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것을 「광야의 소리」 외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이세상의 마지막 개혁자로 외쳐질 「큰 소리 외침」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선지자

(엘렌지 화잇)가 살아계실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험의 때가 이제 우리 앞에 바로 박두하고 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되신 그리스도의 의(義)가 제시됨으로써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RH1892.11.22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큰 외침은 늦은 비의 능력을 수반하지 않으면 큰 외침을 할 수 없다.

큰 외침이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주어진 「현대진리」인 것이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진리란 무엇인가?

*기별자 노아가 멸망을 경고할 때 무엇이냐고 외쳤을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 것이라고 외쳤다. 그 외침이 그 시대에 현대 진리인 것이다. 자아(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義)인 것이다. 자아(세상)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다.

기별자 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으니 속히 이 도시에서 나오라고 경고하였다.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 경고와 초청을 경시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그들은 화장되고 말았다.

기별자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성 멸망을 예언하고 피할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 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것을 보거든(읽는자는 깨달을 진저)”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37)라고 눈물로 호소하셨다.

그 때 “유대”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마 24:16) 이 예언을 믿고 행동하였던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

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자 말지어다.” (눅 21:20-21)

그들은 소유물의 어느 것이라도 지키려고 머무르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예언을 믿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에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계가 성전에 있고 그 분께서 우리를 보호 하실 것이라고 성전 중시 종교,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 주님께서 계시 줄 믿고 예언을 경시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거절한 결과 모두 불에 태움 받게 되었다.

한 탈출구가 있었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은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 -pp 166

말세에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음성(계 17:18)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 18:4)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설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는 음성은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적용되어야만 한다. 진리 말씀 가운데 세상과 오류가

섞여 있는 우리의 상태(라오디게아 상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공존하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義)가 되지 않는 믿음은 개인적인 바벨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진리와 오류가 함께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교회가 바벨론이 되는 것이다.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음성은 계속 외쳐지고 있지 않은가? 가르침(교육)이 바벨이 되면 종교도 바벨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오, 어떤 나라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여!”

내가 권고하시는 날과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다행하였을 것을! 나는 의(義)의 사자로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너희가 회개하도록 호소하였지마는 허사가 되었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척한 이는 단순히 종이나 대리자나 선지자가 아니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곧 너희의 구속주(救贖主)시다. 만약 너희가 멸망 당 한다면 그 책임은 다만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 5:40) -GC 21-22

하늘 대 주재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음이 상하셨고, 고민으로 넘어지셨다.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한한 권능으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나타내 준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난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교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에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와 계명은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할 것이다. 죄에 속박되어 사단의 종이 된 무수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으면서도 권고하시는 날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아니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맹목(盲目)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각시대의대쟁투, 24.25, -메디슨스쿨 pp.28-29 ◇



「삶」이라는 길

인생은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이라 불리는 길을 걷습니다.
 누구도 삶의 길을 밟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주어진 시간과 조건과 역사 속에서
 자기의 길을 선택 하고 걷습니다.

그러나 삶의 종착역에서
 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삶의 이력서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혜롭기로 유명했던 솔로몬은 생의 마지막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1:2)는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후회 없는
 가치있는 삶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영광된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위대한 삶인가요?
 그것은 생의 좌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생의 좌표를
 분명히 정해 놓고 걷고 뛰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선한 싸움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며
 희생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후회없는 영광스러운 삶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바울처럼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아멘 ...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은사들

Gifts for God's People

엘렌 G. 화잇

“성령의 선물은 주의 사업을 위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믿음직한 것이다.” -시대의 소망, 823.

- 1월 모두에게 유익한 은사들
- 2월 성령은 기꺼이 순종하도록 도움
- 3월 진리의 은사
- 4월 사도직
- 5월 예언의 은사
- 6월 전도자, 목사, 교사
- 7월 이적
- 8월 계발해야 할 은사로서의 믿음
- 9월 치료의 은사
- 10월 도움, 행정, 영들의 분별
- 11월 영감적인 교제의 기술
- 12월 계몽, 연합, 완전

9월 1일 (수)

병든 세상에서 환영받는 은사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체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전 12:7-9].

우리들은 우리의 의과학생들이 가장 철저하며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저들에게 위탁된 자분을 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남녀들이 되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의료선교사업을 위하여 주신 빛은 의과학 지식에 있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열등한 위치에 놓이지 않게 할 것이며 오히려 저들이 가장 탁월한 위치에 서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가 저들과 같이 하심으로 저들이 지혜롭고 이해가 밝은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 모든 지혜와 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결함과 무지를 극복할 수 있다. -의료봉사, 65.

주님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사업을 수행하도록 ... 연합하라고 최고의 달란트를 가진 자들을 부르신다. 이들은 많은 급료를 요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선에서 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편에 자신을 두는 이들이다. 우리에게서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과학을 가르칠 의학 교사들이 있어야 한다. (의료봉사, 75)

우리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일을 별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비유 중에 모든 종들이 같은 양의 재능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가 주어졌다. 만일 그대가 한 달란트만 받았을 것 같으면,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꺼내어 장사하여 증가시키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많이 늘릴 수 없다.

그러나, 각 사람은 우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질병과 재난의 물결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 올라와 여호와를 도우라. 강한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는 여호와를 도우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총명과 지식을 소유하므로 틀림없이 분명하고 능력 있게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세상에 드러내기를 갈망하신다. -리뷰 앤 헤칼드 1904.6.9

협력하여 일함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고전 12:28].

의료 선교 사업은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업 중에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교회와 연결이 끊어지면 의료 선교 사업은 미구에 무질서한 원자들의 이상한 혼합체에 불과해질 것이다. 그것은 생산이 아닌 소비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전시키는 그분의 돕는 손으로서의 일을 하는 대신, 교회의 생명과 힘을 약화시키고, 기별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독립적으로 그 일을 경영하면, 다른 분야에 필요되는 재능과 재원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가련한 자들을 돕는 바로 그 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분리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조롱하는 처지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의료 선교 사업에 지속성과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복음 사업이 필요하다. 복음 사업은 복음의 실제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료 선교 사업을 필요로 한다.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완성될 수 없다.

곧 있을 구주의 오심의 기별은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엄숙한 위엄이 나타나야 한다. 큰 포도원을 가꾸어야 한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 일을 하여 각 부분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할 것이다. 의료 선교 사업에 있어서 진리의 산 원칙이 그 광채를 흐리게 할 아무것에 의해서라도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간직된다면 주님께서서는 이 사업을 주관하실 것이다. 만일 무거운 책임을 맡은 자들이 진리의 원칙에 진실되게 굳게 설 것 같으면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붙드시고 굳게 하실 것이다.

목회와 의료 선교 사이에 있어야만 되는 연합은 이사야서 58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 곳에 제시된 대로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장은 명백하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자를 계몽할 충분한 빛이 들어 있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봉사할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가 되어 진리의 빛을 멸망해 가는 세상 앞에 제시하게 한다. - 교회증언 6권, 289, 290.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 103:2, 3].

거룩하신 주님 예수께서는 항상 당신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 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라고 기도 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들은 “영광이 아버지께 ... 있” (마 6:13)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잊지 말아야 했다. 크신 의원께서는 “병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 보고” 이상히 여기는 군중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 (마 15:31)리도록 그들의 주의를 자신에게서부터 당신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매우 조심하셨다. - 선지자와 왕, 69.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이 무엇을 얻게 될지를 생각하라! 이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큰 사업이 있다. 유용한 분야가 이 생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열려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말과 행동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며 그는 회중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는 있다.

주께서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더욱 많은 은혜와 사랑을 더욱 더 많이 주신다. 사업은 교회들 속에서, 교회들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 교인들의 마음은 저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되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목회는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곤궁한 자를 도우며 낙담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자들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근에 죄책감에 눌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인류를 타락시키는 것은 곤고나 노역이나 빈곤이 아니라 죄와 악행이다. 그것이 불안과 불만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죄로 병든 영혼들을 섬기기를 바라신다.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줘야 한다. - 리 뷰 앤드 헤럴드, 1898.7.19.

의료선교사업은 우리 교회들이 설립되는 모든 장소에 그 사업이 행해져야 한다. - 의료봉사, 322.

9월 4일 (안)

교회의 사명의 중요한 부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 147:2, 3].

[의료선교]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는 큰 길과 골목길에서도 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목사들과 교인들은 깨어서 이 사업을 위하여 협동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야 한다. -교회증언 6권, 299.

병자들은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된 노력으로 치료되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과 모든 능력을 그분을 충성되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신다. 지력을 주시는 분,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재능을 맡기신 분께서는 이 재능과 지력이 사용을 통하여 증대되기를 바라신다. 모든 재능은 타인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들의 능력이 개인적인 소유인 양 생각해 왔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주어진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지 않으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였다.

사단은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잠입하려고 한다. 그는 의사에게 그의 재능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재림신도들 사이에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가 자유롭다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의사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다른 모든 백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자 결성하신 백성으로부터 이탈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혹 속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의사는 이 사업으로부터 이탈할 때에 그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 것이다. 만일 그의 계획을 수행하고자 시도하면 성공은 보지 못할 것이다.

목회나 의료 사업에 들어온 하등의 이기심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람의 칭찬이 유한한 인간에게 돌려지도록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바를 제거하실 것이다. -교회증언 6권, 243, 244.

신체적 고통에서 회생 시키는 일은 죄로 병든 영혼의 치료를 위한 문호를 열게 한다. -의료봉사, 322.

9월 5일 (일)

신체의 법칙들을 배움

“내 아들이라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 4:20-22].

여호와께서는 자연계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마련해 두신 치유법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저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리켜 주어야 한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眞髓)는 회복이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백성들에게로 큰 시냇물을 이루어 흘러갈 수 없다. -건강에 관한 권면, 31.

온전한 건강은 학생들의 성공의 바로 기초가 된다. 그것 없이는 그는 결코 그의 대망과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건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법칙에 대한 지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체는 조절이 잘 되어 있는 기계와 비교된다. 인체도 기계와 마찬가지로 돌보고 조절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떤 기계든지 어느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 녹이 슬고 어떤 부분은 계속해서 사용하므로 마모가 되거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두뇌가 일을 하게 되면 그와 비례해서 근육도 일을 해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은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시간 육체적 노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영문시조, 1886.8.26.

치료하는 향유가 되는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 16:24].

예수께서는 심령뿐만 아니라 육신도 고치시는 분이셨다. 그는 자신이 목도하는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며, 그의 친절한 말씀은 진정시키는 향유와 같았다. 어떤 사람도 그가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능력 곧 치료하는 사랑의 능력이 그에게서부터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로 나왔다. 이와 같이 그는 그의 유년 시대로부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다.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즐겨 들은 것은 이 까닭이었다. - 시대의 소망, 92.

동정과 기지(機智)는 냉랭하고 무관심한 방법으로 하는 가장 기술적인 치료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환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때때로 입증될 것이다. 의사가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병실을 방문하여 별반 관심없이 앓는 사람을 쳐다보고, 크게 주의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듯한 인상을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남겨 놓은 후 환자 자신이 마음대로 생각하게끔 버려둔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 환자에게 해를 준 것이다. 그의 무관심으로 생긴 의심과 낙망은 때때로 그가 처방해 주는 좋은 치료의 효과를 무효로 만들 것이다.

만일 의사들이 고통으로 마음이 검혀해지고 의지력이 약화된 사람, 그리고 동정과 보충의 말을 듣고자 갈망하는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볼 수 있다면, 그들은 그의 감정을 더욱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환자들을 위하여 보여 주신 사랑과 동정이 의사의 지식과 합해지면, 그 의사가 나타나기만 해도 축복이 될 것이다. - 치료봉사, 244, 245.

우리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의사, 그리스도를 언제나 제시해야 한다. 그들에게 육체적 질병과 영적 질병을 아울러 치료해 주실 분을 가르쳐 주라.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느끼시고 동정하시는 분을 이야기해 주라.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그들에게 영생이 되게 해 주신 분의 보호에 그들 자신을 맡기도록 권면하라. 그들의 마음이 사랑스러우시고 만민 중에 뛰어난 신봉자 집종되도록 가르치라.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라. - 건강에 관한 권면, 528, 529.

겸비함은 치료가 됨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잠 3:7, 8].

교회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경고와 탄원과 호소를 통하여,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완전한 모본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시고 영혼들을 되찾기 위하여 이 땅에서 노력하고 계실 때 그분은 저들의 불신 때문에 그분이 방문하신 장소의 어떤 곳에서는 많은 힘있는 역사를 하실 수 없으셨다. 이것이 병자를 치료함에서 나타나는 당신의 능력을 더하시고 인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하심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불신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다.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과 사랑이 증가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낙담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대의 병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져가라. 그분 앞에서 그대의 죄들을 자복하면서 그대의 마음을 겸비히 하라. 그런 후에 열렬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라. 그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역사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전 1:27, 28].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들에 나타나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나도록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하도록 자극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백배나 더 할 것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8.7.19.

의료 선교 사업이 현대 진리의 복음의 문을 여는 췌기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도처에서 들려져야 한다. 절약하라! 네 자신에게서 교만을 벗어 버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대가 남에게 줄 수 있도록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1.12.10.

순종이 비결임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 15:26].

인체를 지배하는 모든 법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도 성경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법칙에서 고의로 이탈하는 것은 도덕률을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이다. 모든 천연계가 다 하나님의 법칙을 나타내지만 우리의 신체 조직의 모든 예민한 신경 조직과 모든 살아 있는 섬유 조직과 신체의 모든 기관 위에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친 손가락으로 당신의 율법을 기록하셨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천연의 길에서 이탈하여 우리 자신의 길로 행한다면 우리는 손실과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881.12.18.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영적 은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축적해 두신 가장 풍성한 축복을 상실하고 있는가!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승리와 특별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고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라도 남겨 놓은 것이나 혹은 자아 방종이 없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그들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고투, 모든 눈물과 투쟁이 그들이 바라는 축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 9:23)고 말씀하셨다. 구주의 단순과 자기 부정 그대로 그분을 따라가자. 말과 거룩한 생활로써 갈바리의 사람을 높이자. 구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에게로 가까이 오신다. 일찍이 우리가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필요로 할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성결과 자기 포기의 생애를 위한 힘을 얻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 교회증언 9권, 165, 166.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자비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 107:17-20].

[시편 103:13, 14; 107:17-20 인용됨.] 성령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던 때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병자들을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봉사를 하시던 그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비로운 의사시다. 그분에게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향유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는 능력이 있다.

오늘날의 그분의 제자들은 옛날의 제자들이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회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조용한 믿음의 보증이 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막 16:18)는 주님의 약속은 사도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뢰할 만한 약속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께서 역사(役事)하시는 통로이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신다.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의 믿음의 팔로 안아서 하나님께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위대한 치료자를 믿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붙들도록 격려하게 하신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병실이 뻔뻔로 바뀔 수 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계신다는 사실을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로 알려 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직접 병실에 오셔서 의사와 간호원들의 마음에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신다. 만일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병자의 침상 곁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생애일 것 같으면, 그 환자에게는 자비하신 구주께서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확신 자체가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 치료봉사, 226.

최고의 의사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어 하심이라” [마 8:16,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채워 주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하여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마 8:17).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다.

그분의 도움을 찾아 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분께 나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없었다. 그분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의 물결이 흘러 나왔으며,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해졌다.

구주의 사업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분의 동정은 제한이 없었다. 그분께서는 치료하고 가르치는 당신의 사업을 너무도 대규모로 행하셨기 때문에 당신께로 모여든 무리들을 수용하리만큼 충분히 큰 건물이 팔레스타인에는 없었다. - 치료봉사, 17.

당신의 이적을 통하여 구주께서는 사람을 지탱해 주고 고쳐 주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다. 천연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매일, 매시간, 매순간 활동하고 계신다.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 15:26). - 치료봉사, 112, 113.

가르치는 치료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호 11:3, 4].

병을 고치시는 구주의 방법에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들어 있었다. 한번은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 9:7). 치유는 크신 의원의 능력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약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신 반면에 단순한 자연요법의 사용을 찬성하셨다.

고침을 받은 많은 환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 5:14)고 당부하셨다. 이와 같이 질병은 자연적·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시대의 소망, 824.

건강과 질병은 무관하며 건강과 질병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으며 허약과 질병은 필수적인 것인 양 그냥 무릎을 꿇어 버린다. 돌발적인 질병의 공격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거나, 어떤 지배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악을 치료하기 위해 악물에 의지한다. 그러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하는 약물은 기관을 약화시킨다. - 의료봉사, 296, 297.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됨됨이의 결과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는 없다.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경험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사상과 행위의 열매인 것이다. “까닭 없는 저주는 ...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잠 26:2). - 교육, 146.

우리는 백성들에게 총명하고 또한 능력있게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럴 때에 그들은 영혼과 몸을 치료하는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신 분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건강개혁의 빛을 붙잡도록 각성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9.1.21.

과시가 없어야 함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좃는 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 12:15-19].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 후 여러 번이나 축복을 베푸신 이들에게 그분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유의해야만 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 편에서의 침묵을 가볍게 명하시지 않으셨으며, 명령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그분이 말씀하신 요구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다. 주님은 주신 권면의 말씀을 그들만이 간직하기를 원하셨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긴급한 요청을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것으로 충분했어야 했다.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신령한 사명에 대한 증거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왜곡과 허위를 통해 그분을 비난할 것이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축복을 베푸신 이들에게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셨다. 편견이 일어나고, 질투와 시기심을 품으며, 그분의 길이 막힐 때, 주님은 그 성읍들을 떠나셨으며, 그분께서 나누어 주고자 오신 진리에 귀를 기울이며 감사할 자들을 찾아가셨다. -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35.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렘 45:5).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면류관을 얻고자 더욱 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에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보수를 받는 것보다 의무를 다하고자 더욱 노력하는 사람들, 곧 승진을 위하여서보다 원칙을 위하여 더욱 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신다.

겸손하고, 그들의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사람들은 떠들썩하고 잘난 체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업적이 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업이 더욱 가치가 있다. - *치료봉사*, 476, 477.

초기 그리스도인 봉사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막 6:7, 8, 13].

복음 사업은 병자와 건강한 자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다. 그것은 의료 사업과 말씀을 전하는 봉사 사업을 다같이 겸한다. 이 연합된 매개체로 말미암아 사회의 각 계층과 각 형태의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도록 기회가 제공된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신자들이 의료 선교 사업에 분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지위와 신분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곧 복음의 직무이다. 육신에 병이 든 자들은 거의 언제나 마음에 병이 들고, 심령이 병들면 육신도 또한 영향을 받는다.

목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든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그들의 사업의 일부로 느껴야 한다. 복음 목사는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것은 백성이 성화되고 주의 오심에 준비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사업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포함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 왜 우리의 모든 목사들이 의료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자들과 마음껏 협력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일하신 방법을 알고 그분의 모본을 따르고자 그리스도의 생애를 왜 주의 깊이 연구하지 않는가? - *교회증언* 6권, 300, 301.

모든 교인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봉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우리의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질병과 고통의 물결을 물리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치료봉사*, 149.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것

“민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녘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행 5:14-16].

오늘날 세상은 1900년 전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망된다. 위대한 개혁사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이므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死別)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다.

우리는 의료선교사업의 목적이 죄로 병든 남녀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갈바리의 사람을 가리켜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권면해야 한다... 이따금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하신다.

의료선교사업은 복음의 개척 사업이다. 말씀을 전하는 활동과 의료선교사업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 치료봉사, 143, 144.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놀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행 14:8-11].

한번은 바울이 백성들에게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낫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에, 청중 가운데서 한 앉은뱅이를 보았는데 그는 바울을 주목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바울의 마음은 이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게 되었고,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분별하였다. 그는 구세주, 곧 비록 하늘에 오르셨지만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인간의 친구가 되시고 의사이신 구세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열렬히 붙잡았다.

바울은 우상숭배자들인 청중 앞에서 그의 발로 일어서라고 그에게 명하였다. 지금까지 이 앉은뱅이는 앉은 자세밖에 취할 수 없었으나, 이제 그는 바울의 말을 믿음으로 붙잡고 명령을 즉시 순종하여 평생 처음으로 자기 발로 일어섰다. 이와 같은 믿음의 노력에 능력이 임하였고, 이제까지 앉은뱅이었던 그는 뛰어 걸었다.

앉은뱅이에게 일어난 이 일은 모든 목격자들을 놀라게 했고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으며 치료는 그토록 온전하였고 그들 편에서는 무신론을 믿을 여지가 없었다. 루가오니아 인들은 사도들의 행적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신들이 하늘로부터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크게 소리질렀다. 이 신앙은 신들이 세상을 방문한다는 그들의 유전과 일치하였다...

앉은뱅이를 이적적으로 고친 소식은 곧 온 지역을 통하여 소동을 일으켰고 대중적인 흥분을 일으켰으며 신전으로부터 온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준비했다. - 바울의 생애, 56, 57.

자아를 신뢰하지 못하게 함

비난에 놀라지 않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행 14:14, 15, 18].

사도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배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대상이신 참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려는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려는 이교도들의 의도를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들은 저희가 사도들이 행한 이적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전에 결코 걸을 수 없었던 앓은뱅이가 온전한 건강과 힘을 얻은 것을 보았다. 바울 편에서 많이 설득하고, 하늘의 하나님과 크신 치료자이신 그분의 아들의 대표자로서의 그 자신과 바나바의 사명에 관하여 주의 깊이 설명한 후에야 백성들은 겨우 설득되어 그들의 목적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땅을 방문한 신들에 대한 그들의 유전이 이 세상에서 볼 때에 그들과 그들의 신앙을 높이고 특별한 축복들을 가져오도록 하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자 크게 낙담하게 되었다. - 바울의 생애, 58, 59.

모든 의사들은 자기 자신을 면밀하고도 비판적으로 시험할 필요가 있다. 그의 신앙적 체험은 어떠한가? 그는 자아가 지배하도록 용인하는가? 그는 자기의 소원과 욕망들을 최상으로 삼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그 앞에 놓고 있는가? - 의료봉사, 47.

그대는 환자들을 영혼뿐 아니라 신체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야 한다. 만일 그가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앞에 전능하신 치료자를 제시하는 일에 영향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는 생각과 감사와 찬양을 모든 능력과 자비와 선의 근원이신 분께로 향하게 할 수 있다. - 의료봉사, 150.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행 14:19].

이제 [루스드라의] 변하기 쉽고 흥분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변화가 왔는데 그들의 믿음은 참되신 하나님 안에 닿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디옥의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이고니온의 어떤 유대인들과 연합하여 사도들을 그 지역에서 떠나게 하였고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였다. 앓은뱅이에게 행해진 이적과 그것을 목격한 자들의 노력은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고 그 역사를 거짓이라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부인했으며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악마들에 의해 성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에 동일한 무리들이 구세주를 귀신의 왕자의 능력을 통하여 귀신들을 내쫓는다고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기만자라고 비난하고 이제 그들은 그 동일한 이치에 닿지 않는 분노를 그분의 사도들에게 표시했다. 거짓 수단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을 고소당하게 하는 비통한 정신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역사와 믿음을 철저히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조금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릇된 설명과 비방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사실은 살인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며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믿고 가르치는 자들은 진리를 받아드리지 않고 속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절조없는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보내도록 보내신 자들의 영향력을 파괴하고 길을 막기 위하여 가장 유별난 거짓들을 퍼뜨릴 것이다.

한 무리는 거짓을 만들어 그것들을 퍼뜨리는 자들이며 다른 무리는 그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사단의 기만에 눈이 먼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들 자신을 자랑하지만 대적의 그물에 걸려든 것이다. - 바울의 생애, 59, 60.

모든 사람을 위한 복된 사업

병에 걸렸을 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2].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순한 치료제와 더불어 위대하신 치료자 예수님과 연결시켜 복음을 제시하자. 그러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하신 치료자에게 나아오는 이들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자기 영혼을 낮추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는 일을 기꺼워해야 한다. 거절당하지 않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령한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고 선언하셨다. 이 사업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되 지극히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들은 환자를 간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복음의 소망은 남녀들의 심령 속에서 소생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위대하신 치료자에게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치료하는 일에 의사들은 약품으로가 아니라 이성적 방법들을 따라 지성적으로 일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질병의 악화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려야 한다. 이것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고취시킬 것이며 우리가 가진 단순한 질병 치료법을 신뢰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마음을 진리로 이끄는 수단이 되고 복음선교 사업에 큰 효과를 줄 것이다. -의료봉사, 29.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법과 안식일 학교의 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법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해 주는 최선의 방법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치료봉사, 149.

우리 교회가 있는 모든 도시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 교인들의 가정들 중에 병자를 적절히 돌볼 시설과 방을 여유로 가질 집이 거의 없다. 흔한 질병을 치료할 장소가 있어야 한다. 건물 자체는 우아하지 않고 초라할지라도 단순한 치료를 베풀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들이 기술적으로 이용되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건강 원칙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증언 6권, 11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3-5].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즉시,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혹시 응답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바라지 않은 형태로 응답되면 용기가 꺾이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현명하시고 선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시간에, 바라는 그대로의 형태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것이다...

기도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 주시고자 마련하신 치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과 회복시키는 자연의 역사를 도와 주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병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힘을 더욱 많이 기울여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특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에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다.

우리는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한다는 것을 안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기별을 전했다. 그러자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될 것이라는 기별을 보내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만 하시면 히스기야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 몽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오리라”는 지시가 주어졌다(사 38:21). -치료봉사, 230-232.

내가 돌보던 병든 아이에게 제시되었던 빛이 몇몇 절박한 경우에 도움을 줄 것인데 여러 경우에 주어진 지침은 머리에 [찬 물이 아니라] 얼음 찜질을 하지 말고 [내장이 나 위나 간장에] 따뜻한 찜질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찬 것보다 더 속히 열을 내리게 할 것이다. 찬 것에 대한 반작용이 열을 없게 하는 대신에 열을 오르게 한다. 이 교훈이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다. -원고모음 20권, 278.

9월 20일 (월)

충실한 대사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는 나라” [잠 13:17].

참된 의료선교사업은 하늘에서 기원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런 사명으로 성취된다. 그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의 사업과 일치되어야 한다.

이 의료선교사업에서 이 땅을 밟으신 가장 크신 의료선교사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 더욱 크게 우리를 도와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이 봉사의 분야가 얼마나 신성한지를 깨닫도록 도와줄 것은 이 외에 없다. 이것은 크신 선교사 예수님의 생애에 얼마나 완전하게 수반되었던가! 우리의 선교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를 이 타락한 세상에 보내셨는가? 인류에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로서 오셨다. 그분의 봉사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명이 독특하게 드러났다...

구주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진실한 신자들이 하여금 살아가도록 강권할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사셨다. 그분의 모본을 따름으로 우리는 의료선교사업에서 우리의 신임장이 위로부터 난 것이며 하늘 왕국의 대표자로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라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죄인들을 위해 죽도록 하기 위해서 타락한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속의 위대한 경륜을 수행하도록 당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주께서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려 오셨을 때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의료 선교사가 되셨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때만이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선교사업을 행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므로 신령한 생명과 능력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동역자들” [고전 3:9]이 되도록 배우게 되며 주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각 사람을 위한 사랑을 나타내게 되고 추수할 영혼들을 하늘 공간에 드리도록 열렬히 활동하게 된다. 남부들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내신 선교사로서 당신의 평생에 나타난 그리스도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동일한 갈망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료선교사업을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하여 세상 앞에서 제 위치에서 서도록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당신의 계획들에 세속적인 정책들을 혼합하지 않을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4.6.16.

9월 21일 (화)

거짓 치료자들을 주의하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 12:18].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닳을 내려야 하며 믿음 안에 뿌리를 박고 터를 닦을 필요가 있다. 사단은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한다. 사단은 생수를 마시지 않는 자들, 새롭고 이상한 것들을 갈급하는 영혼들, 제멋대로 아무런 샘에서나 함부로 마시는 그런 자들을 택한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릴 것이나 우리들은 그러한 말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으로 하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케 하는 겸손한 길로 인도하시며 결코 저들로 율법을 범하도록 조장하지 않으신다.

“낮은 자의 음성”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의 음성이다. 많은 사람들은 의의 위대한 표준인 율법을 중시하지 않으면서 크게 허세를 부리며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고 병자를 고치는 행위로써 이적 기사를 행한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병들을 치료하고 있는가? 어떤 편에 있든지 사람들의 눈은 저들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볼 것이 아닌가? 저들이 과연 겸손하고 순종적인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려 할 것인가?...

아무도 속임을 당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보좌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며 그 율법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품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란 없다... 만약 병고치는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는 핑계를 대며 계속적으로 불순종한다면 비록 저들이 부분적으로나 전반적인 면에 능력을 과시한다 하여도 저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그러한 일들은 오히려 큰 기만자의 이적을 행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도덕적인 율법을 범한 자이며 이적과 기사의 참된 성격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사단이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행할 것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또한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런 기사들을 계속함으로써 사단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가 빛의 천사이며 어두움의 천사가 아닌 증거로 그것들을 내세울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5.11.17.

이적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후 11:14, 15].

[사단의] 대리자들은 여전히 질병을 고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전기, 최면술(magnetism) 또는 “공명 치료” 등으로 돌린다. 사실상 그들이 사랑하는 매력적인 능력은 사단의 마법에서 기인된 것이다. - 바울의 생애, 139.

악한 영들의 감화력을 받은 자들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저들은 마술을 걸어서 사람들이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 후에 마술을 풀어 주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시켜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하게 한다. 사단은 이러한 일을 거듭 반복해서 행한다.

우리들은 기만을 당할 필요가 없다. 사단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광경들이 불원간에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을 병 걸리게 하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상적인 치유의 활동들은 체질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므로 빛 가운데서 행치 않게 될 것이다. - 가려뽑은 기별 2권, 53.

[사단의] 때때로 매력적인 젊은이, 혹은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으로 접근한다. 그는 치료를 해주고, 기만당한 사람들에게 인류의 시혜자(施惠者)로 경배를 받는다. - 교회증언 1권, 296.

어떤 사람들은 “화잇 여사는 이적을 행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수행하라고 주신 사업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적을 마치 하나님의 지도의 표징처럼 바라보는 자들은 기만의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 마귀가 믿음에서 떠난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며 저들이 그럴 듯한 이적을 행할 것인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사단은 “거짓 기적들”을 사용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내가 쓴 글들을 읽었으나 아무도 내가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 때때로 나는 병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주님의 말씀이 실증되었다(약 5:14, 15 인용).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 가려뽑은 기별 2권, 53, 54.

끊임없이 인내가 요구됨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 4:48].

자비롭게도 그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놓여진 빛과 지식을 이용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육체적 생활은 물론이요 영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수단들 중 하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될 장소에 자신을 두고 있다.

이 그리스도교 시대와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악의 영들을 찾아간다. 자녀의 병상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내 아이를 고쳐줄 능력을 가진 의사가 없는가?” 그는 어떤 천리안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최면술 치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그의 보호에 맡기고, 마치 그의 곁에서 있는 것처럼 사단의 팔에 정말로 안겨 준다. 많은 경우에 그 아이의 미래의 생애는 깨뜨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단의 세력에 지배된다.

나는 한 어머니가 그녀의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믿지 않는 의사에게 탄원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녀에게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크신 의사 예수님께서로부터 도움을 구하도록 간청했을 때 그녀는 성급하게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 위생, 111, 112.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단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의 그럴 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것이다. - 가려뽑은 기별 2권, 54.

제약의 마법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쩔인고” [렘 8:22].

약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보다는 더욱 해가 많으며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우리 의사들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치료를 사용하면서 위생 법칙을 충실히 실천하므로 그들의 수고에 보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무엇이든 약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말하는 이유를 안다.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솔직히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버리라고 간청하는 바이다.... 그들은 더 큰 기술과 지식이 그들에게 더욱 탁월한 길을 가르친다고 하며 약들을 의지한다. - 합리적인 치료에 있어서의 식용식품, 29.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약을 사용한 결과로 죽고 있다. 수치료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치료를 받았더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 로마린다 메시지, 30.

주께서는 큰 배도가 있을 것임을 나에게 경고하셨다. 영적 타락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귀를 돌이켜 진리를 듣지 않을 것이며 꾸며낸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영양소들은 현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 또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칠 자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왜 우리가 엄격한 절제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모든 해로운 습관들과 영향들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미덕과 거룩함이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나는 영양소들을 설립할 필요성을 우리 백성들에게 강권해야 함을 느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한 이적적인 치료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들을 악용하며 이처럼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잘못된 습관들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치욕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영양소들에 오는 자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올바른 습관을 따르면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 원고모음 6권, 378.

영양소들을 설립하는 우리의 목적은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격려하는데 있다. - 건강에 관한 권면, 528.

우리는 정당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렘 8:14, 15].

“왜 그토록 많이 영양소들에 의존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처럼 병자를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일에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흔히 서로 간에 묻게 된다. 우리 사업의 초기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로 치료함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 그들이 과거에 따랐던 것처럼 식욕을 방종하는 일에 동일한 과정을 추구했다.

그들은 질병을 피하기 위한 길로 살거나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인식함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은 반복해서 그들 자신의 부주의함과 사려깊지 않은 행동노선을 추구하므로 고통을 당해 왔다. 건강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주께서 얼마나 영화롭게 되셨을 것인가? - 건강에 관한 권면, 528.

예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열성으로 각성함을 받아야 한다... 그분은 인간이 일찍이 참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혹심한 투쟁을 통과하셨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딤후 2:5]. 인간은 그가 소유해야 할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는 자기 몸을 다스릴 법칙과 일치하는 가운데 이기기 위해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만일 이기적인 방종을 통하여 절제하지 않으면 그의 신체의 각 기관은 연약하게 될 것이며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는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영생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법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길은 충분히 넓어서 경주하는 자들은 모두 상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불건전한 식욕을 형성하여 거기에 어느 정도이든 방종한다면 우리는 천연의 법칙을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육체적 · 도덕적 · 영적 상태가 쇠약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연 법칙을 진실히 따랐더라면 얻었을 뻔한 지칠 줄 모르며 생동하는 희망찬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 리뷰 앤드 케럴드, 1881.10.18.

병든 자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약 5:14, 15].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자연의 법칙이든지 또는 영적인 법칙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죄악인 것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이를 버려야 할 것을 밝히 말해 주어야 한다.

성경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 (약 5:16)라 하였다. 그러므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므로 당신의 생애의 비밀을 알 수 없고 그것을 당신 자신과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슨 후회하는 죄가 있으면 마땅히 고백하여야 합니다”라고 권고하여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사로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께 나아가 고백하여야 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범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는 무리 앞에서 고백하고, 개인에게 대하여 잘못된 것은 그 당사자에게 사과하여 고쳐야 한다.

만일, 자기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자로서 과거에 독설을 발하였거나, 가정과 교회와 또는 이웃에게 잘못하여 화복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혹은 이간시키고 분쟁을 일으켰거나, 또는 무슨 좋지 못한 일을 행하여 다른 사람까지 그 죄에 빠지게 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과 해를 당한 자들 앞에서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요일 1:9 인용됨]

과거의 모든 잘못을 다 시정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지도 하심을 따라 고요한 믿음으로써 병자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아시되 이름까지 아시며, 또 지구 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써 각 사람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위대하시므로 병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권장할 것이다. 근심과 걱정은 더욱 몸을 쇠약하게 하고 병을 얻게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침울함과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면, 회복될 전망은 더욱 밝을 것이다. -복음 사역자, 216, 217.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건강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시 67:1, 2].

의료봉사 사업의 능력은 죄로 병든 남녀들에게 갈바리의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을 향하도록 하는데 있다. -건강에 관한 권면, 528.

우리가 요양소를 가져야 한다는 빛이 왔을 때 이유는 명백해 졌다. 건강한 삶에 관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병자를 데려올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침 받을 수 있었다. 동시에 병자가 성공적으로 약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빛이 주어졌다. -로마린다 메시지, 30.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그분이 봉사하실 동안 행하셨던 동일한 사업을 행하도록 권능을 부여하셨다. 오늘날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동안에 그러했던 것처럼 동일한 동정 깊은 의사가 되신다. 우리는 모든 질병에 치료하는 향유가 있고 모든 허약한 자들을 위한 회복시키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에 관한 권면, 210.

병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 그 영광이 흔히 의사에게 돌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접촉이며 치료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구주의 치료하는 향유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 회복 받은 사람이 의사에게 찬양을 돌리면 의사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숨기는 것이 그의 의무요, 특권이며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동정 깊은 구주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그가 할 일이다.

그는 오직 도구로서 주님을 사역자와 의사로서 인정하며 이와 같이 생명과 건강을 새롭게 하신 구주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하고 그들의 생명이 높고 거룩하신 목적을 위하여 연장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의 기회이다. -태평양 건강잡지, 1901.2.1.

우리는 모든 교인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할 시대를 맞이했다. 세상은 육체적, 영적 질병의 희생자들이 가득 찬 나(癩) 병원이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의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해 가고 있다. 교인들은 이 진리들을 나누어 줄 책임을 깨닫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교회증언 7권, 62.

치료하시는 구세주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 30:2].

비록 그들이 가진 바로 최선의 것을 그대에게 준다 해도 사랑스럽고 동정 깊으신 구주께로부터 돌아서서 인간 친구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다. 그대의 모든 고통을 예수께 내어놓으라. 그대의 무력한 영혼을 그대의 짐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를 받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대를 위로하실 구주께 맡기라. 주께서는 모든 질병의 위대한신 치료자이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1.11.9.

환자들의 겁 많고 소심함은 그들이 구주께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에게 갖고 계신 큰 관심을 알게 될 때에 정복될 것이다. 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어!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위에서 죽으셨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5.2.2.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팔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제시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위대한 치료자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약속을 붙들지 않고 병든 자를 하나님께 데려가지 않으며 그분의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막 16:17]하신 약속을 주장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보증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약속들은 바로 지금도 사도시대 당시처럼 선명하고 강력하며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치료를 극단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주제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필요성이 교회 앞에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의 특권들을 깨달음은 거의 멸종되어 버렸다. 그것은 말씀의 설교처럼 크게 중요한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5.2.2.

구주께서는 영광의 궁정을 떠나서 유혹을 건디고 악을 저지함으로서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살아 있는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영혼은 주님의 능력을 받고 질병의 고침을 받는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8.7.19.

치료의 강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겔 47:9, 12].

겔 47:1-12에 주어진 장면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가야 할 길을 묘사한 것이다. 큰 사업이 적은 방법으로 착수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져야 한다. 많은 영혼들은 과시가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철저한 어떤 고안에 의하여 서가 아니라 인간 대리자들의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구주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셨다. 그분의 방법이 그를 따르는 자들의 방법이 될 때 그분의 축복이 그들의 수고에 동반할 것이다. - 원고모음 20권, 102.

[겔 47:8-12 인용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요양원들이 그러한 생명과 치료의 강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 교회증언 6권, 228.

셋째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질 때 온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 질 것이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된다. 셋째천사의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해 영광의 분출이 집중될 것이다.

약속의 성취 곧 성령의 강림을 위해 드러지는 기도들이 하나도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각 기도는 축적되고 하늘의 감화력의 치료하는 홍수가 넘쳐흐를 것이며 온 세상에 빛을 모을 것이다. - 원고모음 2권, 206.

주님께서 회개한 영혼에게 용서를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정열과 사랑으로 충만해 질 것이며 열성과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가 받은 생명을 주는 영은 도저히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영혼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이 되신다. - 복음전도, 288, 289.

순결하고 정결하며 단순한 사업

돕는 것은 행복한 것임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낮게 하리라” [렘 30:17].

고기잡는 그물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은 받은 제자들은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인간 생애를 간소하게 사셨으며 진리로 살고 전하셨다. 복음의 빛은 그분을 들은 자들의 소로길에 비취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간소함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학문의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도록 때때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격려함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지식을 위한 이런 갈망 때문에 그의 교육이 마쳐지기 전에 많은 청년 시절을 파괴함을 보아왔다.

만일 우리가 잘 준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이성이 지배하게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교훈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계신 치료자를 모시고 있다. 우리는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크신 의원이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 만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요양소가 하나님과의 산 연결을 유지했다면 진리는 우리 기관으로부터 타오르는 등불처럼 밝게 비쳐나갔을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비와 빛과 동정을 발했을 것이다...

우리는 빛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할 시대에 와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무대에서 세상에 우리의 의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 시대에 와 있다. 오, 이런 사악함이 우리 도시들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공언하는 자들이 졸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대한 구주의 봉사사업은 항상 그분의 말씀 사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동일한 권능으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셨다. 그분은 오늘날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치료자와 접촉하도록 병자들을 데리고 올 우리의 몫을 행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9.1.21.

거의 모든 지역 사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어떤 종교적 예배에 참석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은 그들의 가정으로 틀림없이 전달된다. 때때로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과 접촉할 유일의 길이 된다. -치료봉사, 144.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서로 돕는 것이라” [고전 12:28].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이러한 자녀들은 가정으로부터 나가서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른다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이 연약하고 일에 능숙하지 못한 까닭은 이러한 훈련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귀하고 사랑스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난관에 봉착하거나 곤경을 극복하여야 할 때에는 무기력하고 거의 무익하여진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과단성과 정력, 품성의 견고함과 능력이 그가 견디신 것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도 개발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있게 행하셨다. 성경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이다.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의 동민들은 그가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는 노래로써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의 동료들이 일에 피곤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은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에 원기를 얻었다...

예수는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샘이었다. 나사렛에서 그가 은둔 생애를 하신 온 기간에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 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이나, 숲 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이나를 무론하고 모두 그가 함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시대의 소망, 72-74.

10월 2일 (안)

에덴에서의 도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18].

하나님께서서는 남자의 동무와 배필이 되고 남자와 하나가 되며 남자에게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을 주며 남자는 또한 그에게 힘센 돕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한 여자를 만드셨다. 거룩한 목적 — 남편은 여자의 마음으로 부터의 깨끗한 사랑을 얻고 아내는 자기 남편의 품성을 부드럽게 하고 증진시켜서 완숙하게 하는 — 으로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다 저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 영문시조, 1899.9.6.

어떤 교육 기관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함으로 해서 교육을 잘 받았다는 칭찬을 받는 많은 여성들은 부끄럽게도 실제적인 생활의 의무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가정을 잘 단속하는 데 필요한 자격들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성의 고상한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는 말할 수 있어도 그들 자신은 여성의 참된 지위에서 멀리 뒤떨어져 있다.

유용한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참된 신사나 숙녀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생각은 사람을 창조하시던 당시의 하나님의 계획에 상치된다. 태만은 죄악이며 일상생활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세에서 심각한 후회를 해야 할 충분한 원인이 될 어리석음의 결과이다. — 영문시조, 1886.8.26.

한 어머니는 그녀의 남편이 불신자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버지에게 의해 어머니를 경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녀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심히 무겁다. 그녀는 어떤 노선을 따라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열망을 표현하면서 내에게 그녀가 가정을 떠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녀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한 일도 할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 나에게 물어온다.

나는 이렇게 답변하고자 한다. 나의 자매여, 그대가 남편과 자녀들을 떠나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를 바라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대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느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련들은 매우 가혹한 것들일지도 모른다. 그대는 자녀들이 그대를 경멸할 때 자주 마음이 쓰라릴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건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그대의 의무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일하기에는 돌이 많고 좌절을 안겨주는 모양일지 모르나 그대는 온갖 비판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의무를 단호하게 양심적으로 하려는 그대의 모든 노력에 함께 하시는 위대한 동무이신 분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대를 돕는 자이다. — 원고모음 3권, 369.

10월 3일 (일)

도울 자를 도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 33:29].

나의 목회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가정에서 식탁을 지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며 이미 믿음으로 충분히 확립된 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교회들 주위를 맴돌아서는 안 된다. 백성들로 그들 자신이 빛을 가지도록 하고 목사들을 의존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조력자로 모셔야 하며 그들 자신이 서로 돕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목사는 새 개척지에 들어갈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 — 역사적 고찰, 139.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와 힘을 얻고자 당신께로 피하는 자들을 도우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심령의 겸손으로 의무와 시련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것 같으면, 그분의 강한 천사가 그들 주위를 두르고, 그들이 신뢰한 분께서 모든 비상사태에 충분한 조력자이심을 입증할 것이다. — 교회증언 4권, 599.

목사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특히 새로 신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만일 이 일이 진행되면, 낙심한 자는 곧 자기의 상태를 잊게 될 것이며, 약한 자는 강해지며, 무식한 자는 유식해지며, 모든 이들이 예수 안에 나타난 진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나오면 모두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분 안에서 실수 없는 조력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교회증언 6권, 49, 50.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와 조력자가 되신다. 어려움과 위협과 낙담으로 둘러싸일 때 우리는 믿음과 원칙을 양보해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 부여된 빛의 모든 광선을 품어야 하며 책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실되어야 한다.

당혹과 괴로움 당하는 그대는 위를 보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 동정이 많으신 구속주께 믿음으로 그대의 길을 맡기라. 주께서는 당신의 관심을 그대의 관심과 동일시 하시며 그대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 주는 짐들을 지고 있는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 영문시조, 1878.2.28.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사 41:10, 13, 14].

응급사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일꾼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해야 되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든지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즉시 그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쫓아내야 한다.

그는 비상시에 과외의 일을 요청받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결코 갖지 말아야 한다. 과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온유로 기꺼이 도우려고 해야 한다. 그 때에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작고 평범한 의무들을 행하도록 요구받을 때 어떤 이들은 거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들이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의무들이다. 더욱 큰 책임을 맡는 데 유용한 인물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가장 성공적인 일꾼들은 작은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맡아서 하는 자들이다. 모든 사람은 패턴을 완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기 생애의 실로 피륙을 짜고 있다. 유용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언제나 고용될 곳을 찾는다. 시간은 결코 그들의 손 안에 무겁게 매달려 있지 않는다. -의료봉사, 176, 177.

성경이 가르치는 협력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자녀들이나 부모, 교사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 많은 실례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성막의 건설-품성을 건설하는 데 대한 실물 교훈인데, 여기에 백성들은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출 35:21) 협력하였다. 예루살렘 성이 돌아온 포로들에 의해 빈궁과 곤란과 위험 중에서도 재건되고, 그 큰 사업이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 (느 4:6) 함으로 잘 완성되었던 사실을 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엡 4:25). -교육, 286.

최고의 조력자 예수님을 따름

“여호와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대하 14:11].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눅 16:10).

인생의 성공은 세상에서 작은 일이라고 칭하는 것들을 신실히 주의하여 실천하는데 있다. 조그마한 자선의 행위, 조그마한 극기의 활동,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간단한 말, 조그마한 죄를 경계하여 감시하는 것-이것이 곧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날마다 받는 축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날마다의 기회를 지혜 있게 이용하는 것, 위탁된 달란트를 부지런히 계발시키는 것-이것이 곧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43.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많은 군중을 먹이신 때에 제자들이 감탄한 역할을 생각하라. 음식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붙어났으나,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다가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교육, 286.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임마저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동정해 주고 도와주는 행동에는 감사한다.

어떤 사람이 세속적 칭찬과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집에 찾아 와서 병자들을 간호해 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주고, 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인간 일꾼은 다만 그분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된다.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고, 믿음이 타오르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말씀이 펼쳐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이루게 된다. -치료봉사, 145.

주께서 그대의 관심을 빈곤한 선교지에 두시고 그대에게 도움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대는 결코 기회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대에게 임한 부르심에 주의하라. 이 경우에 그대의 유용성과 도움은 세상의 허영심과 이기심으로부터 그대를 분리시킨 경계선의 구별에 의존할 것이다. 그대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지존자의 뜻이 그대의 뜻을 지배하여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의 정신으로 그대를 채워야 할 것을 인식하라. 주님께 의탁한 대로 이것을 충심으로 행하라.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믿지 않는가? -의료전도, 1903.1.1.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구하는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번치 아니하시고 일어나 사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사 31:1, 2].

그대들은 무엇을 쓸까, 무엇을 출판할까 혹은 무엇을 말할까를 배우기 위하여 세상에 기대를 걸지 말라. 그대들의 모든 말과 행실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벧후 1:16),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벧후 1:19)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라. - 가려뽀은 기별 2권, 371.

면밀하게 살피는 사업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업적을 잊어버리고 그분께 반역하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되돌아보고, 그 곳에서 즐기던 좋은 것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신 것들을 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쾌락에 동참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과, 당신이 그처럼 이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그들이 애굽에서 전체적이며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동안 누리던 방종보다 얼마나 더 높고 평가하시는지 보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치려야 할 희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진실을 시험하실 것이다. - 영적선물 4b, 78.

하나님께서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신성하고 엄숙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들과 주장하는 자들이 쾌락에 대한 사랑을 품고 은총과 자기칭찬을 위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하는 것을 금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본을 그들에게 전혀 주지 않으신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2.6.20.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에 따라 진리를 전진시키기 위한 제안들을 받아들이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는 세상의 계획이 섞인 것을 거절하므로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2.8.23.

가정을 세우는 교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욥 8:20].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아주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주께서 지지하신다면 이것은 좋은 것이다. 죄를 확신한 어떤 형제가 한번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회심하여 이교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러면 가정에서 시작하세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바르게 되도록 하세요. 그대의 죄를 버리고 가정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만일 우리가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결코 기대할 수 없다. - 설교와 대화 1권, 370.

그대들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도록 온유하고 부드럽게 가르치라. 가정을 다스리는 그대의 모본으로 자녀들에게 자제를 가르치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하라. - 스팅턴 중간 모음집 185.

그들의 부모들이 보기에 작은 일들을 민첩하게 행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보다 더 즐거움을 주는 광경이 없다. 주부를 위한 낮은 의자와 함께 엄마를 따뜻하게 하는 안락의자가 놓여 있고 거기에 아버지의 안경 너머로 자녀들이 뛰어 다니는 모습이 보이며 어린 자녀들의 행동이 귀여움을 보이고 사랑의 마음들을 보인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애들이 고맙다”고 웃으면서 돌아보지 않으면, 또한 만일 아버지가 “수지야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며 어린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곧 그런 습관을 멈출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모방하는 사람들이며 그들 주위의 정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만일 어머니의 명주실이 그 무릎에서 굴러 떨어질 때 아버지가 웅크려서 그것을 잡지 않으면 총명한 자녀들의 눈은 그 행동을 보고 그 민감한 자녀들의 마음은 그것을 알아차린다.

모본으로 말보다는 수천 배 빠르게 자녀들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말하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은총을 알아차리고 온화하고 무아적인 마음을 품게 되며 가족의 인락에 대해 사려깊고 깊이 생각하게 된다. 소년들은 그들 아버지의 예의바른 태도에 내적인 긍지를 느끼게 되며 그들의 젊은 누이들에게 용기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나타내 보일 것이며 어머니를 모방하는 소녀들은 오빠들이 떠들썩하고 부주의해도 상냥하고 참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 건강 개혁자, 1874.2.1.

10월 8일 (금)

애굽의 교육으로부터 떠남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사 30:7].

모세로 그의 원수들에게 승리하게 한 것은 애굽의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아니었으며 영구적이며 곱힘이 없는 믿음 곧 가장 극심한 시련의 환경에서도 실패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세는 자기 발 앞에 아무것도 밟을 것이 없었으나 앞으로 전진하였다. 백만이 넘는 수의 백성이 그를 의지하고 있었으며 그는 매일 저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전진케 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광야의 외로운 여행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참는 경험을 얻게 하고 저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의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산 믿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완전한 교육을 받은 인간을 의존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사업은 마치 우리의 어떤 학교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종들이 장기간의 어려운 교육을 받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과 더불어 동역자가 되는 특권을 감사히 여기는 자, 과거에 배운 학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할 자들을 원하신다.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도록 마음 문을 여는 자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살며 불평이나 실망함이 없이 주님께서 명하신 필요한 훈련을 참는 자들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408, 409.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휴양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휴양을 위할 때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정원에서 일을 하거나 들이나 숲으로 소풍을 가면서 그런 유쾌한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을 갖도록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주의 깊은 교사는 여러 가지 기회에 학생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교육, 212, 213.

10월 9일 (안)

선구자들이 되도록 편성함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 4:9, 10].

하나님께서서는 흑암과 오류에 묻혀 있는 지역 사회로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 지혜롭고 끈기 있게 일할 그리스도인 가정을 부르신다. 이 부름에 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장애가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영혼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이익을 위하여, 과학 지식을 얻기 위하여 위험한 지역으로 용감하게 들어가서 고난과 궁핍을 견디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런 일을 즐겨 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주를 소개할 남녀들은 어디에 있는가? - 교회증언 9권, 33.

자급 선교사들은 때때로 매우 성공적이다. 작고 보잘것 없는 방법으로 시작하지만 그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영의 지도 아래 그들이 전진함에 따라 확장된다.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전도 사업에 함께 나가게 하라. 그들은 그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선두에 있는 자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격려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기도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진리를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들은 문서 전도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 방법으로 그들은 많은 가정으로 진리가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전진할 때 복된 경험을 얻게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알고 겸비해져 있지만,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그들은 은총과 도움을 발견한다. 심지어 이 헌신적인 선교사들의 빈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들의 길을 지나갈 때 그들은 그들이 영적 양식을 가져다주는 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의 노력은 성공으로 관 썩워진다. 이 겸손한 교사들이 아니었으면 결코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지 못했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될 것이다. - 교회증언 7권, 23.

향기로운 동료 일꾼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 4:3].

빛이 주어진 자들은 옥함을 인봉해 두지 말고 깨뜨려서 모든 주위에 나누어줄 향기가 되게 하라. -스팔딩 마간 모음집 125.

하늘 가족의 축복을 구성하는 것은 사랑이다. 가정생활에서 사랑을 계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친절하고 사려 깊은 봉사와 쾌활한 말과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과 너그러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자 도움이 되는 감화를 가정의 영역 밖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그들은 굶주린 심령들을 분별하기에 민감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것이다...

주께서 우리 가정 밖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도록 명하실 때 그분은 가정을 위한 우리의 애정이 감소될 것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며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동정심을 넓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혈연이나 우리의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리뷰 앤 헤랄드 1895. 10. 15

비록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활용하면 그것이 불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봉사를 평가하시며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따라 하지는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충결과 사랑으로 매일의 의무를 이행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마치 보다 큰 사업을 성취한 것처럼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적은 달란트와 보잘 것 없는 의무 수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큰 봉사를 하고 큰 달란트로 장사하고자 열망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일상의 의무들을 떨쳐 버리고 더 큰 책임들을 찾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을 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다.

아,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봉사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이 교회에 상기시켜 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그런데 그대들의 시간 중 대부분을 그대 자신을 섬기는 데 바친다면 주께서 그대들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계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대들은 주님께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교회증언 4권, 619.

착한 비비를 훈련함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비비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롬 16:1, 2].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빛을 비취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엄을 갖춘 겸손하고 헌신적인 여인들에게는 길이 열려 있다. -교회증언 6권, 285.

어떤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의무라고 내려다보는 일-아마도 요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지 모른다. 그러나 요리의 과학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음식의 능숙한 조리는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나 의복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언제나 가장 필수적인 예술 중의 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나 의복을 만드는 것을 도외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에 좋고 구미가 당길 음식을 요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다른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부 파수꾼, 1901.10.30.

어떤 어머니들은 그들의 딸들을 게으른 그대로 남아 있도록 허락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 자신의 손으로 문을 열어놓고 마귀를 안으로 초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뜨개질을 하거나 코바느질을 하거나 수를 놓거나 하여 그들의 시간을 보내거나 그들 자녀들이 할 일을 가정부를 두어 하게 한다. 그들은 다른 젊은 친구들을 방문하도록 허락하며 그들 자신의 지식을 형성하도록 하며 가정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곳을 방문하게 하여 부모의 감시를 멀리 하게 하며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도록 허락한다. 사단은 이런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한다. -어머니들에게 대한 호소, 14.

자녀들은 그들의 초기 생애에 저희 부모들을 돕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행하므로 그들은 피곤한 어머니의 짐을 가볍게 하므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이 역동적인 수고에 종사하는 동안 시간은 그들 손에 무겁게 매달려 있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헛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거나 부적절한 친구들과 교제를 하거나 악한 교제로 그녀의 선한 태도를 더럽히게 하여 순결한 딸의 전 생애를 메마르게 할 기회를 덜 갖게 될 것이다. -어머니들에게 대한 호소, 16.

소망을 품도록 도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롬 16:9].

우리는 모든 교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는 인간의 눈에 가리워진 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의 페이지에는 호기심 있는 사람들의 눈에 신비하게 가리워져 있는 슬픈 역사가 있다. 거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치루는 지루하고 고된 싸움, 아마도 날마다 용기와 확신과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커다란 장애물을 놓고 생애의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만 친절함 노력만으로 보여 주는 작은 주의력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내미는 강하고 유용한 손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친절함 말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이다.

적은 임금을 위하여 힘겹게 일할 수 밖에 없는, 빈곤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겨우 연명할 정도의 필수품 밖에 얻을 수 없다.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없이 당하는 수고와 손실은 그들의 짐을 매우 무겁게 해준다. 고통과 질병이 첨가되면 그 짐은 거의 질 수 없게 된다. 근심에 시달리고 억압된 나머지 그들은 헤어날 길을 어디에서 찾을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시련과 마음의 고통과 실망을 동정해 주라.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는 그들을 도와 줄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 주라. - 치료봉사, 158.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저급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품성을 떨어뜨려도 우리는 그들을 경멸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도 안 되며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임을 숙고해야 하며 만일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영혼들에 그분의 빛이 비추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경멸하고 싶어 하는 자들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경멸하도록 유혹을 받는 타락한 남자나 여자나 청년들을 예수께서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리뷰 앤드 해럴드, 1895.10.15.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않는다. 그는 그의 소유와 자신을 모두 주님의 사업에 바치기를 기뻐한다. 그는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표현할 수 없는 욕망에 의하여 움직인다. 이 욕망이 없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들로 봉사의 정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 교회증언 7권, 10.

메로스의 저주를 피함

“여호와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삿 5:23].

신자들은 저들이 할 수 있는 열심 있는 노력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있으며, 경건하고 헌신적이며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모든 분야가 절름발이가 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대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확고하게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은 오류를 대항하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라.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시간에 연약하고 마음이 비겁한 자들이 너무 많다.

오, 그들이 연약함에서 뛰쳐나와 강하게 되어 전투에 용감한 용사로 적군을 패주시켰으면!

메로스인들로 대표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번도 마음에 선교적 정신을 품어 보지 못했다. 외방 선교의 부름도 그들로 활동하게 하는 자극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 빚을 무엇으로 갚겠는가?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 [마 25:26]이라는 선언을 받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수고가 내방과 외방 선교 양편에 더욱 열렬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땅의 보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재능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데 정진해야 한다. 하나님께 성별된 그들의 기지와 재능들은 받아들여진 바 될 것이며 주께서는 진리에 대한 오류로부터 사람들을 방대한 사업으로 돌이키는 데 유력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청년 남녀들은 그들이 주님을 위한 사업을 갖고 있는지를 알도록 마음 속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돈으로는 할 수 없는, 성취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 미개척지가 열렬한 일꾼들에게 공급되어야 하며 그들의 심령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한다. 선교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참아야 할 고난과 시련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일이 힘들고 많음을 발견할 것이나 품성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낙담, 그리고 결핍 아래서 주님의 팔을 굳게 붙잡고 견디어 낼 것이다. - 선교사업에 대한 호소, 290.

이론을 실천에 옮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막 9:24].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은 빛과 증거가 풍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막 9:24) 하고 부르짖을 영혼의 능력과 의지와 힘의 부활에 달려 있다. -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09.

살아있고 역동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속절없고 의존해야 할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와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막 9:24)라고 말하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극기와 희생을 연구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말씀 그대로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하라. - 리뷰 앤드 헤럴드, 1910.2.17.

우리 교인들은 절실히 실제적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극기와 자아 희생을 실천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음에 대한 증거를 세상에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업은 대리인을 통하여, 즉 그들이 직접 져야 할 짐을 어떤 위원회나 기관에 지움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돈과 시간과 개인적인 노력을 들여 병든 자를 돕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가난한 자를 돕고, 실의에 처한 자를 격려하고, 흑암에 있는 영혼에게 빛을 주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무를 깨닫게 함으로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 - 교회증언 6권, 263, 264.

그리스도인 봉사 사업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일함으로 단지 이론적 신자에 머무는 것에 만족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빛 가운데서 행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믿는 바를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믿음과 행위를 합쳤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시하는 일을 행하였다. 많은 영혼들이 빛을 얻었고, 깨달음을 얻고, 도움을 받았다. - 교회증언 6권, 299.

우리는 우리 주위의 각 방면에 우리 앞에 있는 실제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된 보증을 갖고 있다. - 원고모음 18권, 126.

굳게 세워진 하늘 정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6, 7].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며 사랑이시며 주님의 홀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 대총회 매일 회보, 1897.2.17.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어전(御前)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히 1:3) 모든 천사들 위에 최상권을 가지신다. 원시부터 높이 계신 영화로우신 보좌는 당신의 성소(聖所)가 있는 곳이며(렘 17:12 참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히 1:8).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니이다”(시 96:6, 89:14).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 부조와 선지자, 34.

교회는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다른 세계에 있는 하나님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 가려뽑은 기별 3권, 17.

교회 안에 책망이나 행정이 없으면, 교회는 조각이 날 것이며 한 몸으로서 결속될 수 없을 것이다. - 교회증언 3권, 428.

연약하고 경험이 없는 자는 비록 연약하지만, 보다 소망을 가진 자와 성숙한 경험의 소유자에 의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 비록 가장 작은 자이지만 그는 건물에서 빛나야 할 보석이다. 그는 조직된 몸체의 필수 불가결의 지체이다. - 가려뽑은 기별 3권, 16.

질서를 실천하고 강요할 수 있도록 교회가 조직되지 않을 것 같으면, 미래에 있어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조각이 되어 흩어져 버릴 것이다. - 교회증언 1권, 270.

봉사를 위해 조직됨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다스리는 것이라” [고전 12:8].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인생의 제일보는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데는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사람을 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구세주의 생명으로 고무함을 받은 교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직접 외부의 세계에 대한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 *대총회 회보*, 190.7.1.

주님의 군대의 참된 군사가 되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열렬하고 진지하고 유능한 일꾼들이 될 것이다. 신중하게 행하고 있는 형제에 대하여 “그대는 주님의 사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께 말하십시오”라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목사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짐을 져야 한다는 감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할 경험에 제약을 받고 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5.7.9.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영혼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대의 모든 재치와 재능과 기술을 바쳐서 이 일에 참가할 수 없겠는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에 모임을 조직하라. - *영문시조*, 1893.5.29.

각 교회마다 그 교회 근처에서 일할 잘 조직된 일꾼들의 단체들이 있게 하라. 자신을 뒤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생애와 능력이 되어 앞에서 가지게 하라. 지체없이 이 일을 착수하라. 그리하면 진리는 땅에서 누룩처럼 될 것이다. 그러한 힘이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 역사하게 될 때, 교회는 혁신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활동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 주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활발하고, 열렬하고 열성으로 충만해 지게 하라. 그대가 일하는 그 지역사회에 알려 줄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분께서 그대에게 주신 재원과 능력과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대단히 적은 규모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일이 점차적으로 커져서 마침내 그대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도록 노력하라. - *리뷰 앤드 헤럴드*, 1891.9.29.

다스림을 거절하는 자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벧후 2:9, 10].

자만심을 가진 강신술사들은 크게 자유를 주장하며 좁고 곧은 길 보다는 쾌락과 젖된 방종의 넓은 길을 택하도록 방심한 영혼들을 매혹하고 속이기 위해 부드러운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말한다. 강신술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속박이라고 일컬으며 노예의 두려운 생애에 복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부드러운 말과 온화한 언사로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자랑하며 그들은 그들의 위험스런 이론을 의의 옷으로 감싸려고 애쓴다. 그들은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반란적인 주장들을 한다.

그들은 죄인들 앞에 유혹 마음이 부치기는 길을 따르도록 넓은 문을 열어 놓으며 하나님의 율법, 특히 일곱째 계명을 범하게 한다.

이런 크게 과장된 허영심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대적하며 반역의 과정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며 그들이 속이는 자들에게 약속한다.

이런 속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사단에게 가장 속박을 당하게 되며 그의 능력에 지배를 당하며 그럼에도 그들 자신이 택한 죄의 동일한 과정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장하게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성경말씀이 이런 식으로 성취된다. 이김을 당한 자는 이기는 자의 노예가 된다. 이런 기만당한 영혼들은 마귀의 뜻에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어두움의 권세에 연합하게 하며 귀신들의 뜻에 대적할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게 된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복당하는 자들이 되며 속박을 당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기만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큰 자유는 죄와 사단에게 속절없이 노예가 되게 한다.

우리는 그들의 집단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우리 목사들도 그들과의 투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집단에 초청해서는 안 될 특별한 부류에 속한 자들로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서도 안 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75.4.15.

질서가 있는 다스림의 은사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시 119:133].

질서는 하늘의 첫 번째 법칙이며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하늘 궁정에서 가득 채우고 있는 질서와 조화를 나타내 보이기를 갈망하신다. 진리는 결코 그 섬세하고 여린 발을 부정이나 불순결의 길에 들여놓지 않는다. 진리는 남녀들을 거칠고 조야하고 단정치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준다. 그리스도의 영향아래서 계속적인 정령의 작업이 진행된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주어진 그들 진영의 안이나 주변에 모든 것이 청결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특별한 지침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천사들이 진영을 두루 돌아다닐 때에 그들의 불결함을 볼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 이런 사실이 선포되었는데도 그들의 불결함을 보신다면 주께서는 그들의 군사들과 함께 싸우려 가실 수 없으셨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청결의 습관을 소중히 하도록 매우 신경 쓰셨던 그분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의 가정에서 그 어떤 불결함도 승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부정에 대해서도 반대의 눈길로 바라보신다. 모든 것이 단정하고 청결하고 순결하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할 수 있을까?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가난할지라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가정이 깨끗하고 또 단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깨끗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이 보이는 이들은 이 방면에 대하여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높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 반드시 순결하고 단정한 심령을 가져야 함을 배울 것이요, 또한 이 순결함은 섬기는 천사들이 진리가 생애를 변화시키고 심령을 정화시키며 취미들을 세련시켰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의복과 가정의 모든 일일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진리를 받은 후 말과 처신과 옷차림과 생활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지 못하였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2.6.10.

한 원칙으로서의 질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전 14:40].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은 질서와 청렴함을 교만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을 떠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무질서하게 말하며 개량되지 않은 상태로 말하며 그들은 이런 것이 세속적인 사물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이라고 말하며 영적 수준의 높은 경지라고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게으르고 나태하며 그들의 거래관을 특징짓는 이런 증거들은 그들의 신앙 생애에 스며들 것이다. 그들의 신앙경험은 결점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청렴하고 질서 있기를 요구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그분의 모든 지침은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주위환경에 질서와 청결한 습관을 세우는 것이 한 특징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근본적인 것이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한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보다 합당한 감화력을 끼칠 것이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0.4.22.

어떤 사람은 인품이 매우 단정하지 못하다. 그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 올라와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했을 때 정결한 몸과 깨끗한 의복을 입고 오라고 선포하셨다. 오늘날 그분의 백성들은 양심적으로 깔끔하고 단정된 습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평가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단정하고 깨끗하다. 우리는 불필요한 단장과 과시에 대항하여 경계하는 한편 외모에 관해서도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격과 가정에 관한 모든 것은 청렴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청년들은 외모를 보이는데 대한 중요성을 가르침 받아야 하며 하나님과 진리를 영화롭게 하는 중요성을 가르침 받아야 한다...

어머니들이시여,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 자녀들의 사상이 정결해 지기를 갈망한다면 그들 주위의 환경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영문시조, 1880.4.22.

나는 하나님께서 단정하지 못한 것과 불결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임을 보았다...

나는 이런 일들이 공개적인 책망을 받아야 하며 만일 진리를 공언하며 이런 일들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즉시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은 진영에서 내쫓김을 받을 것임을 보았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2.6.10.

10월 20일 (수)

교회에 질서를 세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딤후 1:5].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 각성시키고 바로잡기 위한 의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 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애를 특징지워야 할 것으로 내게 보여 주신 단순함에서 해마다 더 크게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거의 절망하였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헌신도 적어져 왔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어떤 점에서 증언들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는가? 어떤 점에서 그들은 받은 바 경고를 존중했는가? 어떤 점에서 그들은 받은 바 교훈에 유의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에 큰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참 경건 안에서 새로워져야만 한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사랑, 자기 애착, 자기를 높이려고 계산된 모든 야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특별한 일에 사용될 것이다. 겸손이 교만을 대신하며, 자고한 마음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뀔 것이다. 마음의 모든 능력은 모든 인류를 위한 사심 없는 사랑에 의해 주관될 것이다. - 교회증언 2권, 484.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나머지 일을 바로잡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한 일꾼들이여,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에 들어가도록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산 일꾼들, 세상에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 주위에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그대들을 지지하고, 힘주고, 붙들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하늘 천사들이 있다.

각 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호소한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서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고, 의의 태양의 환한 광선을 비추고 순결하고, 거룩하며, 더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세상의 큰 길과 골목에 빛을 전하라.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교회들이 깨도록 하라. - 교회증언 6권, 436, 437.

10월 21일 (목)

영들을 분별함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고전 12:8, 10].

어떤 이들은 그들 스스로의 불신에 너무 눈이 멀어서 B 형제의 정신을 분별할 수 없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권면 속에서 있었다더라면, 그들은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에게 확립되어 있는 신앙에 관해 의심과 불신을 제시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는 느꼈다.

한때 그가 기뻐하였던 진리는 이제 그에게 흑암이 되었으며, 그의 길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그는 다른 교단의 견해들을 혼합해 놓는 일속에 떨어질 것이며, 전체적으로 서로간에 일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혼자서 독특한 교회가 될 것이나, 교회의 위대하신 머리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몸된 교회의 신앙을 반대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함으로 그는 교회를 낙망과 실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 - 교회증언 3권, 441.

원수가 일할 많은 수단들이 있으며 시온 성벽의 파수꾼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믿을만하고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임할 기만과 거짓에 대해 경고를 주셨으며 그분의 경고는 엄격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 사람의 감각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해야 하며 한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황의 요구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모든 목적하는 영이 하늘로부터의 끈은 기별이어야 함을 식별해야 한다. 그들은 기만이 바로 우리 한 가운데서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교육과 훈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요 아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의존되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 원고모음 14권, 197, 198.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교훈을 모든 업무에 적용하는 가운데 어떤 정신이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된다. 저들은 인간적인 충동과 타오난 성향을 따르는 대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아담의 아들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배울 수 있다. - 하늘을 바라보며, 187.

그리스도의 예리하신 직관력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눅 20:20-23].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샘이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근원으로부터 그들의 권면을 받는다.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 행” [약 3:17; 골 4:5]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모든 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한다면 우리의 눈은 하늘의 안약을 바르게 될 것이며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세상에 있는 것을 떠나 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부정과 불성실과 이기심과 꺾치레와 허위와 과시와 탐욕을 식별할 때 그리스도를 앎으로 건전한 원칙들과 견고한 고결함과 거룩한 담대함으로 우리의 입장이 진리의 사업을 대표하도록 해야 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9.10.7.

주께서는 우리가 질문자나 의심하는 자 편에서 있지 않도록 당신의 축복을 충만히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영적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 타인의 음성에서 돌이켜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크게 공연하므로 그대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그대는 세상의 빛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그대는 세상의 빛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세상의 어두움인가?”

온 하늘은 귀중한 빛이 위탁된 그대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 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대에게 명백히, 그리고 밝게 비추고 있다.

“이것이 내 영혼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그 마음에 비취도록 허락되어 온 빛을 접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소용이 없다. 진리의 빛은 어떤 무엇보다도 더욱 귀중하다... 이 빛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무슨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9.10.1.

솔로몬의 식별력을 위한 기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상 3:7-9].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작은 아이임을 깨달았다. 그는 분별력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되려고 지식을 갈구하는 이기적인 야망이 없었다.

그는 부과된 의무들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였고 그의 통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편이 되게 할 재능을 선택하였다. 솔로몬이 “중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 [왕상 3:7]합니다라고 말했다 때보다 더 부요하고 현명하고, 참으로 위대했던 때는 결코 없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솔로몬에게 슬기로운 식별력을 주신 그분은 오늘날의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기꺼이 동일한 축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5)고 선언하신다. 중책을 맡은 사람이 부나 권세나 명성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한다면 그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분별력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의 성별을 유지하고 있는 한 높은 지위를 갈망하지 않을 것이며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 참 지도자는 최상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대신에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지각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도의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크신 근원인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거장(巨匠)이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깨우침을 받아서 그들은 성스럽지 못한 감화를 대항하여 굳게 서고 정사(正邪)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 선지자와 왕, 30, 31.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왕상 3:11, 12].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이 부나 명예나 장수(長壽)보다 더 갈망하던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 민첩한 마음과 넓은 도량과 부드러운 정신을 달리는 탄원은 허락되었다...

다년간 솔로몬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정직과 확고한 원칙,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특징지어졌다. 솔로몬은 모든 중대한 사업을 감독하였고 나라에 관계된 사무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였다.

그의 부와 지혜, 그의 치세의 초기 동안에 이룩한 장엄한 건물들과 토목 공사들, 그의 언행에 나타난 정력과 경건과 공의와 야망은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을 사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

여호와와의 성호는 솔로몬의 치세의 초기 동안에 크게 영화롭게 되었다. 왕이 나타낸 지혜와 의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의 탁월함을 만방에 증거하였다. 한동안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으로서 여호와와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었다. 솔로몬의 초기 치세의 참 영광은, 탁월한 지혜와 큰 부와 원방에 미친 그의 권세와 명성 가운데가 아닌, 그가 하늘의 선물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호에 가져온 영예 가운데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솔로몬의 명성이 더해감에 따라 그는 자기의 지적 영적 능력을 증가시켜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계속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여호와와의 은총을 통하여 이같은 권세와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선물들은 그가 만왕의 왕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사실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 선지자와 왕, 31-33.

죄를 식별함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궤함을 분별치 못하랴” [욥 6:30].

영적식별력이 없는 자는 거짓과 참을 식별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무관심하고 나태한 자들은 은혜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가운데 성장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교리의 첫 번째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며 인간이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을 확보할 경험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의무,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과 유용성,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보하도록 최대의 근면을 호소하며 우리가 영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밀접한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단의 기만에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원하여 교훈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권면과 경고들을 주의할 것이다. 주께서는 자비하심 가운데 이런 훈계와 책망을 주신다.

주님의 공언하는 백성들이 맹목적으로 움직이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으면 그분은 그들에게 책망과 경고와 권면의 기별을 보내신다. 만일 그들이 고치기를 거절한다면, 만일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다면 주께서 보내신 기별자를 버리게 되고, 그들은 기별자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게 된다.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권면을 거절했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삼상 8:7].

어떤 사람은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기만하는 가운데 그들의 잘못들을 볼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결함과 위험들에 소경이 된다. 그들은 그들의 죄와 잘못들을 알지 못하며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되어 주께서는 그들의 정신적 맹목과 마음의 완악함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하시며 덧에 걸려 패망하게 된다.

엣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책망과 경고의 말씀들을 주의하기를 게을리하고 거절했을 때 그분의 보호하심이 그들로부터 떠나고 그들은 기만 당한채 내버려졌으며 그들 자신의 패망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오직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고에 주의한 자들만이 유혹자의 덧을 피할 수가 있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4.1.8.

도울 기회를 인식함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왕하 4:8].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앞길에 축복을 감추어 두셨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향락이 달아날까 두려워 건드리지도 못한다. 천사들은 우리가 선행할 기회를 이용하는지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남들을 축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교회증언 2권, 28.

귀중하고 자아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종을 등한히 할 만큼 속임당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활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등한히 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변명의 말을 했다. 우리는 너무도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해 왔으므로 낯선 자들을 두려워한다. 우리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을 돌봐 줌으로 야기되는 어려움 때문에 어떤 실수를 범하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는가?

바울은 히브리 인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히 13:1) 하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이 필요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그쳐도 좋을 때가 있다는 말로 스스로 위로를 받지 말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계속해서 읽어 보라. 형제들이여, 다음번 그대들의 아침 저녁 가족 예배 때에 그 성경절을 취하여 읽으라. 하늘나라에 영접될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한 것이었다. 이 선한 일들을 한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인류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했다. 원편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필요를 등한히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했다. 이처럼 등한히 한 일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등한히 한 일의 요지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 (마 25:43) 다고 서술되어 있다...

나는 어느 곳에서나, 안식일 준수자들과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있는 이기심을 통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쫓겨난 그분의 성도들을 통하여 불과 며칠 동안 그분에게 거처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인가? - 교회증언 1권, 679, 680.

옳은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겔 44:23].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에게 보내 주신 빛들을 거절하지 않도록 비상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빛들으로써 원수의 계략을 간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온 빛이 언제나 필요하다. -리뷰 앤드 해럴드, 1883.10.16.

사람들의 마음을 펼쳐진 책처럼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근시안을 가진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는 예리한 책망과, 긴급한 경고와 탄원들의 필요성을 식별할 수 없다. 인간들과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자신을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책망의 기별들을 대항하여 언급할 것이며 사물을 그들 자신에 적합하도록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면에서 돌이킬 것이며 결국 주께서 계획하신 사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릇된 길로 인도되며 그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경고를 내던지고 그럴 때에 사단은 그들 영혼들을 덮어 걸리도록 속일 준비를 한다. 주께서는 만일 그들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폐망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을 도와야 하나 오직 그들을 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막대기로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 두 큰 부류만을 표현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 15:19] 라고 말씀하셨다. 종교 교사들의 두 부류만이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요일 4:6]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리뷰 앤드 해럴드, 1884.1.8.

빛에 대한 책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죄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도 유흥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욘 4:11].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자비의 기별을 들었으며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오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앞에서 승배함을 받으셨다. - 청년 지도자, 1897.9.23.

그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오래참으심에 열라. 그대가 하나님을 위한 사업, 그대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대에게 맡겨진 책임을 깨닫지 못한 채로 하루를 보내지 말라. 죄로 상한 자들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로 하루를 보내지 말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폭 넓은 계획에 일할 거리를 찾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할 약정아래 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멸망해 가는 자들의 외침이 그분의 귀에 들려온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시 72:12]. 우리는 그분이 책정하신 분야에서 그분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같은 대변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러므로 그분은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찾고 있는 시험 받는 자들을 항상 동정하신다... 그분은 무지한 자들,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신다.

그분은 우리의 당혹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므로 서로를 위해 일해야 한다. 우리 동료 일꾼들을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방법으로 활동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충분히 신뢰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 긍휼과 동정의 말들은 목마른 영혼에게 한 잔의 냉수와 같다. 그대는 연약하고 낙담하는 동료 인간들에게 봉사하므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소망과 격려의 말을 이야기하므로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을 것인가? - 태평양 연합회 기록자, 1902.3.13.

그릇된 식별력을 피함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 3:18].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거짓 형제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가룟 유다도 사도중에 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다.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쓴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잎이 청청할 때에는 가라지와 곡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밭의 곡식이 익어 누렇게 되면 쓸모 없는 잡초들은 여물어 고개 숙인 곡식과는 전혀 다르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 때에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라지도 곡식 사이에서 햇빛과 비가 주는 모든 좋은 것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용납되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 3:18).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가 하늘 가족과 같이 살기에 합당한자인지를 결정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공언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 실물교훈, 72-74.

10월 30일 (안)

징조들을 식별함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 16:3].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에 대하여 잠자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이 착수되지도 않은 채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백성들을 깨워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되 지금 그 일을 하게 하고자 기별을 차례로 보내셨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라고 응답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

태만과 나태에 대한 책망이 교회에서 사라질 때, 주님의 성령께서는 은혜롭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와 섭리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진리의 빛은 밝고 강한 빛으로 비칠 것이며, 사도 시대에서처럼 많은 영혼들이 오류에서 진리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땅은 주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 대리자인 교인들이 바쳐야 할 큰 사업에 그들과 협력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그들은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다. 일터는 너무 방대하고, 계획은 너무 넓기 때문에 성화된 모든 심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서 봉사에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아래에서부터 역사하는 한 세력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의 대리자들이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는 동안,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활동시켜 그의 지배 아래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크게 이용한다. 주도 많고 신도들도 많을 것이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단의 깊은 음모는, 남녀들의 주의를 긴급한 의무에서 돌이키게 하는 목적을 가진 모든 곳에서 절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이와 같은 현시(顯示)에서 크고 두려운 미래에 대한 전조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는 승리를 식별할 것이다. -교회증언 9권, 46, 47.

모든 사람이 흔들거리는 육적 안전의 요람에서 잠들어 있지는 않을 것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시대의 징조를 식별하는 성실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행동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동안, 끝까지 견딜 얼마간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증언 5권, 10.

10월 31일 (일)

식별력을 키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 5:14].

그리스도 시대처럼 오늘날도 기묘하고 이상한 견해들이 난립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넓고 높고 고상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큰 빛이 주어졌음에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큰 원칙들을 실생애에 들어오지 못했다. -원고모음 14권, 59.

신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교회의 녹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들의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들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끊임없이 행사해야 한다. -교회증언 9권, 47, 48.

진리를 믿고 끊임없이 향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를 믿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뒤로 물러가거나 무관심할 시간이 없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물에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대들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를 갖고 각 사람의 사업과 품성을 시험할 때를 통하여 그대가 서 있는 위치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사물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의 능력을 영적 사물에 사용하게 해서 힘에 힘을 얻도록 하라.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보할 아무런 계단도 밟고 있지 않다. 그들이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산 체험이 없다. 그들은 현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

그들의 현신은 형식적이며 속이 비어있고 그들의 경건에 깊이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자유를 주며 열심히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명철함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산 믿음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 생애 속에 하늘빛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 주는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1.10.

아름다운 고백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오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옆 사람 모르게 조용히 믿어야 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 아저씨들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30명의 어린이들을 잡아 갔어요.

경찰 아저씨들은 어린 친구들에게 앞으로는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부드럽게 타이르기도 하고 교회에 가면 혼내주겠다고 무섭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들은 어린이들에게 종이를 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라고 100번 쓰면 풀어주겠다고 말했어요. 어린이들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썼을까요? 어린이들이 쓴 글을 보고 경찰 아저씨는 깜짝 놀랐답니다.

거기에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내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었답니다.

아저씨들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린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오게 했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게 했지만 부모님들은 경찰관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중에 쌍둥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경찰 아저씨들은 그 어머니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쌍둥이를 풀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을 풀어주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시면 나 혼자 키울 수가 없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경찰관 아저씨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며 쌍둥이와 어머니를 풀어주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어린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요?

우리 친구들도 한 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내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